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천능의 하나님 아버지, 종말을 향해 달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신실한 재대로 살아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1-1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01호 2012년 9월 15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2012대선, 보수-진보 '정책'에 대한 심판

CWR, 성경적 6가지 핵심가치들에 민주, 공화 정강정책 비교 제시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실시된 민주, 공화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설문에서, 꺾임은 오바마와 롬니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업무 수행 찬성률이 50% 미만인 점으로 볼 때, 이번 대선이 1960년, 1968년, 1980년, 2004년, 2008년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봤다.

1952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15차례의 대선을 비교한 결과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 직전 시행된 꺾임 지지율 조사에서 앞선 후보가 승리한 경우가 12차례로 승률이 80%에 달했다. 전당대회 직전 지지율이 뒤진 후보가 이긴 경우는 1988년(공화당의 조지 HW 부시), 1992년(민주당의 빌 클린턴), 2004년(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세 번 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선후보들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설문에서 특이한 점은, 미국인들이 대통령 후보의 개인의 소위 '인물론'에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 후보

의 공약 즉 민주, 공화 양당의 강령과 정책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7월 16-26일 성인 2,508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8%) 응답자의 71%가 '롬니의 정책이 부유층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답해 롬니가 '억만장자의 귀족적 사업가'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오바마의 정책이 빈곤층이나 중산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대답은 각각 60%와 50%로 나와 롬니와 대조를 보였다.

따라서 크리스천 여성들로 조직된 전국적인 복음주의단체(Concerned Women for America, CWA)는 6가지 성경적인 핵심 가치들에 양당 정강, 정책상의 차이를 소개하면서(Party Difference Defined), 복음주의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정에 대한 정의

공화당은: ▲결혼 제도는 시민 사회의 근본이다. 제도로서의 성공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일치로 정의하는 연방결혼수정안을 지지하고 천명한다.

▲주 헌법으로 보장되는 DOMA(The Defense of Marriage Act)를 수호하며, 연방정부는 동성간의 결혼에 관여하지 않는다.

민주당은:▲사랑한다면 결혼해야한다는 공정성과 균등의 원칙을 지지한다. 동성 결혼자들에게 대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 주나 연방정부는 반대해야 한다.

▲DOMA는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가족"에는 반드시 LGBT(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관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주 정부는 동성에 조직, 기관들이 차별과 다른 혐오 범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

공화당은: ▲독립선언문에도 자명하게 천명되어 있듯이, 우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확신하며 태어날지라도 누구도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는 한 인간의 권리라고 천명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독교적 시각에서 각 정당 정책에 대해 예리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공 기관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낙태를 증진시키거나 실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낙태를 위해 심대 소년들이 낙태가 허용되는 다른 주로 이송을 원할 경우에는, 부모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한다는 법안을 추진시킬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Roe v. Wade 판결 이후, 여성에게 보장된 임신과 낙태에 대한 권리를 지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약화시키거나 잠식시키는 어떠한 정치적 노력들을 반대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이 책동하고 있는 '낙태시술기관들(Planned Parenthood health centers)'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 지원 삭감을 반대한다.

교육

공화당은: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면으로 계속)

'완벽한 지도자'에 대한 환상 버려라

리더십저널, 허상이 만들어낸 거짓지도자 히틀러 사례 소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조력자로서, 구원자로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구조자로서 감동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그(히틀러, Hitler)를 존경하는가."-루이스 솔미츠(Louis Solmitz), 함부르크 학교 교사, 1932년.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 대한 강력한 대중의 열망은 선전 전략의 이용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한다. 나치당 당수인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의 신중하게 조작된 대중적 이미지를 통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바이마르 공화국 기간 동안 나치는 권력을 통합하고 국가적 단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갈망을 활용했다. 나치 선전 선동은 나치당이 단기간 내에 정치적으로 부각돼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를 통솔하는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반의 선거 캠페인 소재와 흥미진진한 시각적 영상, 그리고 완벽한 각본에 따른 공식적 출현은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 "지도자 숭배" 현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했다. 그의 명성은 대중 집회, 퍼레이드 및 라디오에서 했던 연설을 통해 커져만 갔다. 이러한 대중적 인물물사를 통해 나치 선전자들은 히틀러를 언제라도 출정 준비가 된 군인로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같은 이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독일에 영광을 안겨 줄 메시아적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해 나갔다.

활용 가능 전략적 포인트 간파 돈독한 인간관계 맺기 현실화 될 수 있는 비전 제시

강력한 이미지와 단순한 메시지 등과 같은 현대적 선전 기법은 1932년 독일 대통령 선거에서 오스트리아 태생의 무명의 히틀러를 일약 유력한 후보로 탈바꿈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선전선동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전선에서 병사로 참가한 젊은 히틀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히틀러는 독일이 전장에서의 패배 때문이 아니라 적들의 선전으로 인해 전쟁에서 졌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이 간단하고 명료한 메시지로 자국의 군사를 격려하고 독일의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추측했다. 히틀러는 상징, 웅변 및 이미지의 힘을 잘 알고 있었고 단순, 명확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대중에게 도달하는 당 슬로건을 공식화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대중적 찬양은 독일의 공공장소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었다. 나치 선전자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독일 국가의 화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에 대한 헌신으로만 가득 찬 존재로 묘사했다. 대중적 인식은 제1차 세계대전 베르사이유 조약 이후 사기를 잃은 독일 국가를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히틀러 이미지를 강화했다. (3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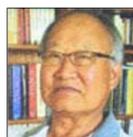
이슬람 세계 뉴스 3면



크리스천의 눈으로본 세상 김혜천(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5면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 7면



여리고로 가는 길(2) 정충해 박사 14면

대한 예수교 장로회 보수합동 국제총회 및 GMI 세계선교대회

9.17(월)~20(목), 2012

장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흥목사)

선한싸움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동역자

2 Timothy 4:7-8

- 개막식 및 선교사 간증의 시간: 9.17(월)~19(수), 오후 7:30(비전센터)
- 금요일특별집회: 9. 21(금) 오후 7:30 현지 선교사 간증, 북한선교보고
- 룻기특별공연: 9. 22(토), 오후 7시
- 선교부스 및 먹거리 장터: 9.18(화)~20(목), 오후 5:30~7:30(야외정원)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 음식과 현지 사역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의 시간)
- 주최: 대한 예수교 장로회 보수합동 국제총회
- 주관: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Tel. 1. 714. 446. 6200 / 714.446.6208

시론

대선을 이끄는 교회



원종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금년은 이른 바 대선(大選)의 해이다. 11월 6일과 12월 19일, 약 한 달 보름 사이에 한미 양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미국은 2008년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명예를 안고 4년 만에 첫 재선 흑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2008년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낙선했으나 4년 만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재기한 몰몬교 명문가의 미트 롬니가 대권을 두고 만났다. 한국은 이미 대통령후보로 나선 여당의 박근혜와 그 대항마로 거론되는 야권의 안철수, 문재인 등이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일찍 확정된 후보 간의 정책대결로 열기가 뜨거워지는 동안, 한국은 아직도 후보확정경쟁이 진행 중이다. 양국 대선이 그 일정에 따라 성숙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누가 뽑히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이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대선을 앞두고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신학과 교단의 시각, 그리고 교인들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어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정치적 격변마다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으며, 대통령 선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이기 때문에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좋은 대통령을 지도자로 뽑기 위하여 교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가장 교회다운 정치적 참여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회의 가장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기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의 길인 기도가 정치적 수단이 될 수는 없지만 '정치수단'이 아닌, '정치참여'로서의 기도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국민들을 대신 대표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뜻이 정치를 통해 땅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며, 현 국가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물론 미래 지도자 선출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러나 교회는 어느 정당이나 특정 개인을 지지해서는 안된다. 정교분리론에 대한 해석 적용차원에서 그렇지만, 교인들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고려한 묵회 현실적 이유 때문에도 그렇다. 심지어 교회에 특정 정당 지지자가 많거나 심지어 대통령후보가 출석하고 있어도 교회는 공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을 지지해서는 안된다. 정당이나 인물 선택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헌법적 특권이자 의무이다. 교회가 스스로 정치적 존재로 격을 낮추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럴수록 미성숙한 정치자들은 교회를 이용하려 들 뿐이다.

셋째, 교회는 투표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유해야 한다. 교인이 자신의 영적존재성만 강조하다가 이 땅을 향한 사회적 책임을 경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기도가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의 길이라고 한다면, 투표는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참여의 길이다. 투표일에 교회행사를 만들지 말 것이며, 오히려 유권자등록이나 투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각종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이 땅을 기경하는 일이자, 성경적인 정치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일이다. 기도를 하되, 대선의 기회에 하늘과 땅 두 시민권을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선거등록이나 투표의 장소로 교회건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교회건물은 본질상 예배장소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 교회건물은 지역사회와 공유해야 할 '하늘자산'이 되었다. 전도나 선교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교회본질에 대한 이해가 폭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다양한 면에서 교회와 사회의 연계 사역이 건물공유 혹은 건물나눔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건물을 선거 관련장소로 내놓아야 한다. 물론 지역사회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예배시간 이외의 건물공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또 다른 길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더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길이 있겠으나 적어도 이 정도는 모든 교회가 공감할 수준이라 생각한다. 좋은 대통령을 뽑아 건강하고 좋은 나라를 세우면, 좋은 나라 안에서는 복음 전파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임을 실감하며, 한미 양국의 대선을 선도하는 교회모습을 그려본다.

복음주의자들의 현명한 판단 기대

CWR, 성경적 6가지 핵심가치들에 민주, 공화 정강정책 비교 제시

(1면에서 계속)

▲교육은 학교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은 가정,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영역으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윤리적, 행위적 규범들이나 전통들이 젊은 세대에게 전수되는 과정이다.

민주당은: ▲공교육은 민주적 제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이다.

▲민주당은 공교육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학교에서 LGBT 성향이나 행동을 한다고 왕따 당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

포르노그래피

공화당은: ▲인신매매와 연관된 어떠한 아동 음란물 제작, 반포에 대한 금지 정책을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



의 주 역할은 모든 시민에게 하나님을 주신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공화당은 강력한 국가 수호만이 바로 평화, 경제적 번영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는 설명한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극명히 부각된 공화당의 대선 전략은 완전히 보수 성향으로 선화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정-동성(애)결혼 찬성 vs 반대 △생명존엄성-낙태 찬성 vs 반대

△가정교육 중시 vs 공교육 중시 △포르노그래피 강화 vs 언급회피

△종교적 신념 중시 vs 자유 △강력한 국가수호 vs 정부 해결 불가

민주당은: ▲포르노나 음란물에 대한 언급이 없다.

종교적 자유

공화당은: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들을 존중한다.

▲군목들의 종교적 독립을 보호하며 군사적 시설에서 성경이나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상징들이 금지되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십계명의 공공장소에서 설치, 전시를 지지한다. 또한 공립학교 행사에서 학생들이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천명한다.

▲비즈니스에서 종교적인 견해 차이에 따른 어떠한 형태의 정부의 차별 정책을 반대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은 종교적 자유 원칙을 존중해왔다.

▲교회들의 자유를 지지하며, 정부의 간섭 없이도 종교적 기관들이 동성결혼을 종교적 성사행위로 집전하는 것을 지지한다.

정부 주권과 역할

공화당은: ▲자유사회에서 정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민주당은: ▲지구촌 기후 변화는 현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재난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들은 테러리즘, 핵무기 확산, 사이버, 생물학적 공격들, 기후변화 등으로 미국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에게 대한 "Don't Ask, Don't Tell" 원칙은 없어야 한다.

결국 퓨리서치의 다른 조사(23-26일 성인 1천10명 대상, 오차범위 ±3.6%)에서 드러났듯이, 양당 후보들의 연설보다는 민주, 공화 양 전당 대회에서 채택된 강령들에 더 관심이 있다는 응답도 52%나 됐다.

미국 대선에서는 그동안 각 정당의 정강이 특별한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 정강의 세부적인 내용과 무관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정강과 상반되는 정책을 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와 공화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게 되면서 양당 모두 상대 정강을 묻고

물론 민주당 역시 소위 "종교적 합수", 또는 "신앙 합수"라고 불리는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고자, 정강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루살렘'을 더해 관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CWR이 보여주는 6가지 핵심 가치들에서 볼 수 있듯이 진보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했다. 정강을 통해 "동성 결혼자에게 이성 결혼자와 같은 법적 대우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신과 관련한 결정을 여성 스스로 할 권리를 지지한다"며 낙태에 찬성했다. 공화당은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헌법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정강에서 밝혔다. 낙태에는 강

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반면에 공화당은 사회정책 측면에서도 '보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태아에게도 침해할 수 없는 근본적인 권리가 있다'며 모든 형태의 낙태에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애초 미트 롬니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성폭행 등에 의한 임신과 산모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에 대해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성결혼은 금지해야 하며, 혼인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명시하도록 헌법 개정에 나설 것'이란 조항도 포함됐다. 보수 진영이 '복숨'처럼 여기는 '총기 소지권'에 대해서는 "이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입법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그간 환경과교육을 우려해 금해는 연근해 대륙붕과 북극권 생태보존지역 유전개발도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역시, 4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정강을 비교하면서 "거울에 비친 것처럼 상반된다"고 평가했다. 현안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결론으로, 민주 공화 양당의 전당대회가 마치고 나서, 비록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도에 있어서 백악관 탈환을 노리는 롬니 후보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이지 않다는 점은 유권자들이 양당의 정강,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이다.

이제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유권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 후보의 인물보다는 이들이 내세우는 정강과 정책에 예민해 있다. 과거 선거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에 틀림없다고 미 언론은 지적한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이 정강이나 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다. 바로 성경에 천명된 기독교적인 가치를 정치영역에서 실천하려는 정강과 정책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복음주의자들은 후보자가 기독교인이나 아니냐를 갖고 선택하기보다는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에 얼마나 가까운 정책과 삶을 추구하는 인물인가를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는 국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우려는 것은 미국인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9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 서리·유원정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 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들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세계 이슬람 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지난 주 이슬람 세계 주요 뉴스 요약

8월말과 9월 초 해외 언론은 이슬람 세계에서 일어난 특별한 뉴스는 없고 다만 시리아 사태가 간간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9월 첫 주 타임지는 시리아에서는 매일 어린이 25명이 죽어가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다는 AFP 뉴스를 짙막하게 보도했다. 요르단으로 피난간 시리아 여성들이 왜 유엔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지 않느냐고 데모한 것이 보도됐다. 이것은 순진한 무슬림들의 바람이지만 강경 무슬림들은 서방국가가 이슬람 국가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침략으로 규정할 것이다. 불경건자들(Infidels)이 자기들 거룩한 땅을 밟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나토의 리비아 공습은 이것을 이미 증명했다.

전 세계로 확대되는 이슬람 살라피스트?

타임지는 동시에 미국의 두 대통령 후보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프간 사태를 전혀 외면한다고 미군 지도자들의 말을 인용한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의 타타르 자치주에 이슬람 살라피스트(이슬람 과격주의) 테러리스트가 온건 이슬람 지도자를 암살할 것을 보도하면서 비교적 온건한 무슬림 지역에 과격 이슬람 세력으로 인해 이제 러시아가 불안하다는 것을 보도했다. 우려한대로 이슬람 안방이 불안하면 도리어 이슬람 강경세력들이 더 설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이슬람 테러의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8월 31일 미국 CBN은 독일 살라피스트 테러리스트가 잠복해 독일 경찰이 대대적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독일을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 과거에는 나치즘(Nazism), 이제는 살라피즘(Salafism)



에릭 슈타켈벡(Erick Stakelbeck)/CBN News Terrorism analyst 2012년 8월 31일
알제리의 살라피스트들은 이슬람 중에서도 극(極)보수파로서 지금까지는 대중 앞에서 다소 삼가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과감히 도전적 자세로 바꾸어 세상 속에 뛰어들어 만성질병과 같은 이슬람 폭동에 맞서겠다고 한다(Reuters/Louafi Larbi).

독일은 20세기 초반에는 나치스, 후반에는 공산주의를 통해 극단적 이데올로기를 모두 경험했다. 그리고 이제 살라피즘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 살라피즘은 이슬람의 극단주의 중

파로서 반기독교 및 반유대교적 입장이 매우 강하다. 최근 CBN뉴스에 따르면 살라피즘은 서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살라피 운동 대거 검색운동을 전개하다: 2012년 6월 독일 전역에 1000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살라피 무슬림들의 가옥, 학교 및 모스크를 수색했다. 살라피주의자들은 이슬람교의 선지자 마호메트를 귀감으로 삼고 사리아를 철저히 지킨다. 과격 하드주의를 이데올로기로 삼고 알-카에다 및 이슬람 테러집단과 입장을 같이 한다.

독일의 무슬림 4백30만 가운데서 살라피 세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독일 언론인 프란츠 파이더(Franz Feyder)에 따르면 보안 요원들은 현재 독일 약 5000여명의 살라피주의자가 있다고 추정한다. 파이더는 독일 내 살라피주의자들의 행적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그가 CBN뉴스에 알린 바로는 독일의 살라피 운동은 과격 급진과 양상을 띠고 있다. 모든 살라피주의자들이 테러리스트는 아니다. 하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살라피주의자다. 작년 프랑크푸르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서 용의자는 미군 2명과 일반 시민 2명을 살해한 바 있고, 911사태 이후 체포된 테러용의자만 해도 12명 정도에 이르며, 해외에서 지하드를 펼치기 위해 독일을 떠난 자도 많다.

파이더 등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살라피즘 출신의 많은 지하드 운동가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거나 파키스탄에 있는 훈련캠프로 향했다. 또 그 중 상당수는 소위 '아프리카의 뿔'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 즉 소말리아, 예멘, 케냐 등지를 거치는데, 일부는 거기 잔류해 그 지역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평화주의적' 살라피즘은 가능한가?

이슬람에서 족장적(Sheike)인 아부 아담(Abu Adam)은 뮌헨에서 '다를 코란'(Darul Quran)이라는 모스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는 '살라피'라는 표현을 싫어하고 스스로를 단지 무슬림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하지만 독일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 그의 모스크는 수색 대상이었다. 그는 급진과 살라피주의자로서 반유대주의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독일 정부는 독일 내에서 살라피주의가 성장할 경우 내부적으로는 독일이 알카에다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테러리스트 수출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십자가 목걸이 착용 불법"



지난 주 유럽 법원은 십자가 목걸이 착용이 불법이라며 해고당한 영국 여승무원들이 고소

한 사건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였다. 금년 초 영국 항공사 여승무원 4명이 목에 십자가를 달았다고 해고시켰다. 이들은 목걸이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게 하라는 회사 명령에 불복했다. 이들의 주장은 십자가 목걸이는 우리 신앙이자 신분의 상징인데 왜 그것이 안되느냐고 항의했지만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해고당했다. 이들은 유럽법원에 고소했으나 목걸이를 보이게 착용 못하게 하는 것이 결코 신앙의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금년 이 사건을 두고 영국 수상 데이빗 카메룬은 직장에서도 신앙의 자유는 절대 보호하겠다고 천명했지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사건을 맡은 정부측 판사는 십자가 착용이 결코 기독교 신앙의 일반적 표현이나 성경이 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입장: 만약 십자가 목걸이 착용이 불법이라면 무슬림 여성들이 차도르 역시 불법이다. 물론 프랑스에서는 차도르가 공공장소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영국은 자유이다. 이것은 규제하면서도 무슬림들의 많은 종교적 상징은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참고로 현재 EU 지도자들 상당수는 전통적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키스탄, 신성모독죄 덮어씌운 이맘 구속



지난 호 파키스탄에서 14세 신자 소녀가 립사 마쉬가 신성모독죄로 구속당한 사건을 이미 보도하였다. 그러나 그 소녀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CNN과 BBC가 9월 8일자로 보도하였다. 그런데 얼마전 파키스탄 이슬람 이맘 칼리드 치스티가 도리어 구속당하고 말았다.

이유는 그가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코란을 찢어서 이 소녀의 가방에 살쥔 넣었다는 것이 발각되고 말았다. 그래서 칼리드는 도리어 신성모독죄로 걸리게 되고 말았다. 기독교 신자들을 괴롭히기 만들어진 신성모독죄가 도리어 무슬림이 걸려든 것은 처음일 것이다.

WCC중앙위원회가 파키스탄 종교탄압 규탄

내년도 WCC총회 한국 개최를 앞두고 보수 기독교회가 WCC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WCC신학은 전형적으로 타종교와 대결이나 갈등보다는 대화신학을 강조하고 공산권이나 이슬람 국가의 종교탄압에 비교적 침묵했다. 그런데 최근 WCC중앙위원회가 파키스탄의 종교탄압, 특히 기독교 탄압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보도는 아시아카도릭뉴스가 전한 내용이다(영어로 우리는 가톨릭으로 쓰지 않을 것이다. 라틴어나 영어 Catholic은 '카'이지 '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만 유독 가톨릭으로 표기한다. 들리는 소문에 위하면 대학총장 회의를 할 경우 문교부는 좌석배정을 알파벳순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면 '카'도릭 대학은 뒷자리이다. 그래서 '가'로 고집한다는 것이다.)

(14면으로 계속)

'완벽한 지도자'에 대한 환상 버려라

(1면에서 계속)

아돌프 히틀러 숭배 현상은 신중히 조작성 현상이었다. 나치 선전자들과 예술가들은 지도자의 그림, 포스터 그리고 흉상들을 대량으로 만들어 공공장소나 가정에 설치했다. 나치 당 출판사는 히틀러의 정치적 자서전 마인 캠프(Mein Kampf, 나의 투쟁)를 수백만 부씩 출판했고, 신혼부부용 보급판 및 맹인을 위한 점자본 등의 특별판으로도 출판했다.

나치 선전자들은 히틀러를 독일의 위대성을 되찾아주고 안정을 가져다주며 일자리를 창출한 천재 정치가로 영웅화시켰다. 나치 정권 아래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사이버 종교수준에 이르는 대중적 열광을 보냈는데, 이틀테른 나치에 대한 경례라든지 길에서 서로 만날 때 "하이 히틀러!"라는 "독일식 인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히틀러에 대한 신념이 국가 통합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반면, 이에 대한 불순응은 나치제국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과 이에 관련된 지도자들이 구속되는 나치사회에 불화를 예견했다. 그리고 전대 미문의 전쟁과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반인륜적 처사도 지도자 히틀러가 인류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미화돼버렸다.

그러나 리더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선다.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내색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자의 움직임을 간파하지 못해 당황한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다. 항상 지도자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이슈도 꿰뚫고 있어야 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도 언제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제는 '완벽한 지도자' 허상을 깨야 한다. '불완전한 리더'(Incomplete Leader)를 찬양할 때가 왔다. 지난 6년간 수백 명의 임원들을 인터뷰한 데보라 안코나 MIT경영대학원 교수팀은 각각의 리더들이 지닌 능력을 네 가지(맥락 파악, 관계 맺기, 비전 제시, 방법 도출)로 분류해 소개한다.

어떤 리더도 네 가지를 모두 갖출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리더 자신이 먼저 완벽한 리더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조직이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1. 맥락파악(Sense making)

새로운 기술이 해당 산업 전반을 어떻게 바꿀까? 노동시장의 글로벌화는 신입사원을 뽑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여러 상황 중에서 특히 그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낼 수도 있어야 한다. 대표적 선택메이커로는 전 인텔회장 앤디 그로브가 있다. 그는 경쟁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포인트를 간파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2. 관계 맺기(Relating)

전통적인 리더상은 조직원들과의 교감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네트워크중심으로 돌아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효율적인 리더십의 필수 덕목이다. 관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으면 직원들이 고립되고 각자 딴 일을 하게 된다.

허브 클러허 사우스웨스트 항공 전 CEO는 관계 맺기에 남다른 능력을 보였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고객에게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기꺼이 말한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3. 비전 제시(Visioning)

비전은 산업의 집중력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위한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비전제시에 뛰어난 지도자들은 사람을 미래에 대한 꿈으로 흥분시킬 줄 안다.

비전이 성취할 미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와 비유를 섞어서 전달할 줄도 안다. 비전이 없는 조직은 목표가 걸려돼 침몰하기 쉽다.

4. 방법 도출(Inventing)

아무리 호소력 있는 비전이라고 해도 현실과 유리되면 쓸모가 없다.

맥 휘트먼 이베이 CEO는 창립자 피에르 오디미야르가 온라인 시장에 대해 품고 있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오디미야르는 이베이 창업 동기에 대해 "시장의 힘을 기업이 아니라 개인에게 돌려주고 싶었다"며 "모든 사람이 정보에 대해 동일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시장이 꿈이었다"고 말했다. 휘트먼은 오디미야르의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온라인 보안문제와 구매자 신용도 관리 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상황화)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rofessor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엘에이 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0월 1일(월)-5일(금)
강의제목: Counseling for Modern Christian Ministers(현대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한 상담)
교 수: Dr. Ken Bickel
장 소: 세계로 비전교회(담임 조요환목사)
3102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연 락 처: 허귀암목사(usa8291@gmail.com, 전화: 714-308-7308)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한국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1월 12일(월)-16일(금)
강의제목: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교 수: Dr. Tom Stallter
장 소: 경남 하동제일교회(담임 오정훈목사)
- 한국강의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C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을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박사과정)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MA Courses(석사과정)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지구촌 한 가족

우리가 사는 현시대의 나라든 개인이든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엔이란 기관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FTA와 국가 혹은 기업 간에 상호 연계하고 있어 전 세계가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강남스타일”이란 뮤직비디오가 세계각국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롬니의 막춤은 패러디가 어느 쇼 프로그램에 등장하여 시청하는 이들에게 친근감과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이란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는 옷과 사는 집, 먹는 음식이나 문화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잘 안다고 하더라도 융화되기는 쉽지 않았습니. 물론 오늘날에도 각기 고유의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입는 옷이 거의 같고 유행도 서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식생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디서나 세계각국의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주거의 형태도 각 나라 도시를 보노라면 어디가 어디인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밀집되어 아파트들이 비좁습니다. 세계가 공통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난과 기후에 대한 영향도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쓰나미의 잔해물이 바다 건너 멀리 미국 시애틀에 도달한 것을 보면

재난도 어느 특정 국가만의 피해가 아닐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남태평양의 대표적인 피지 등 여러 섬들의 해변이 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각국에 지진과 폭우, 태풍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잘 살고 싶어 몸부림을 쳐도 주변 환경은 여의치 못합니다. 우리는 유럽을 잘 경계하며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경제 침체는 그 여파가 이웃나라에 전달되어 아일랜드, 포르투갈로 이어지며 지금까지 힘든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많은 가정들은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기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고 있고 생계를 위해 험준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스의 불행은 그 나라의 불행일 뿐 아니라 이웃에 전이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은 서

로 힘을 합쳐 돕기 위해 애를 쏟습니다. 그러나 너무 깊은 경제적 상황은 서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리스 한 나라만의 고물이겠지만 현대의 경제구조체제를 볼 때 주변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한자에서 사람 인(人)자는 두 획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양입니다. 두 획에서 어느 하나의 획을 빼면 넘어지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두 획은 상호 보존성, 상호 보완성,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계는 50대 50의 관계로 서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을 쓰러뜨리고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래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등 영토문제로 각국이 긴장상태에 있습니다. 과거사를 들추어 다 시금 냉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사에 적대적 관계가 되어 운동경기

나 혹은 경제적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팽팽한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후세들에게 이런 냉전을 대물림해야 하는 것이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둑에 ‘착안대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멀리보라는 뜻입니다. 큰 그림을 그려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소국적인 측면에서의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세계를 펼쳐 큰 그림을 보고 서로 돕고 상호 상생하며 살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세계는 같은 것들을 공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 각기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불행할 것입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손을 잡고 문화를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는 지구촌 한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푸/른/초/장

한세영 목사
(워싱턴 메시아장로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분명 행복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만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받은 은혜에 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 행복케 하신 삶이 행복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간섭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다. 내가 만일 내 힘으로 흘러나오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준에 의한다면 입안의 침을 맘대로 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있는 바를 죽한 줄로 여기며(딤후6:7-8), 또한 은혜로 의인되어진 자임을 감사하

자 하나님의 후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온 땅과 온 만물 위에 스스로 지존하시며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고,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고 오직 그의 능력과 권세와 절대적인 지혜로, 이 알지도 알지도 알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조족지혈(鳥足之血)도 안 되는 아주 미세한 적은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종 되었던 땅 애굽, 당시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특히 이스라엘 자식들은 그저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을 완전히 저주하시고 멸망 받게 하시면서 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광야 가운데 그들의 행로를 방해하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구원받게 하셨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을 완전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괴롭힐 조공의 기운조차도, 의지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들을 꺾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들의 하나님

사하고 또 감사하며 롬12장 12-13절의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니라” 여기서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주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구원에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연 무슨 칼과 방패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칼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음 있는 자는 담대하고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우리만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로 우리의 대적들을 다스리며, 그들의 가장 높은 곳까지도 밟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그들 위로 행진하여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밟고 그들 위에 우뚝서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시험도, 고난도, 환난도, 억울함도, 죄악의 유혹도, 좌절과 낙망과 패배도, 질병도, 가난함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대로 ‘오직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이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다 하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곧 영원한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며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놀라운 영광과 행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영려와 낙심과 갈등의 자리에서 일어나 과연 행복자의 인생을 당당히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자로다 신명기 33:29

1997년 프랑스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장 도미니크 보비가 프랑스 엘르 잡지 편집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몸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폐쇄증후군’이 와서 나중에는 왼쪽 눈 하나 밖에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어치료사의 도움으로 알파벳에 하나 둘 손을 짚으며 눈을 깜빡깜빡해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알파벳에 그의 손을 갖다 대다 그가 눈을 깜빡이면 그 스펠링을 하나 받아 적고, 또 받아 적고, 그렇게 해서 글을 썼는데, 1년3개월 동안 눈을 무려 20만 번을 깜빡거리고 13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게다가 이 책은 이 책을 완성한 다음 출판되기 이틀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의 머리말에는 이런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키는 일입니다.

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이란 말의 의미는 ‘축복(강복)’ 영어성경에서 보면 “Blessed are you, O Isra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처럼 선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나타내는 것과 또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민족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감히 전지전능하신 절대

것 밖에는 알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 되고 미약한 존재인 우리가, 감히 그런 엄청난 신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믿음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잠의 우리의 손을 어느 순간에도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와 범죄 속에서라도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호와와는 오직 전능하시어 능히 그들을 그 엄청난 괴력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배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푸신 은혜가 얼마나 큼니까? 우리가 미국 땅에 올 때, 월 얼마나 많이 받았고, 또 월 얼마나 많이 가져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명 아직 우리 속에 잠힌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이루실 현실의 미래와 영원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에 더욱 감

무엇인지를 염려하며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행복한 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 하여도 심지어 재능도, 지혜도, 지식도, 아무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우리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재능도, 지혜도, 지식도, 그 무엇도 능히 되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붙들면 지혜도 그 무엇보다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의 칼과 방패로 믿고 하신다면, 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

담임목사청빙

루이지아나주 슈리포트보조 한인장로교회(PCUSA)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1. 정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M Div).
2. 목사 안수후 2년 이상 목회경력이 있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학력증명서
2. 본인 및 가족소개서
3. 목회 계획서
4. 최근 시무한 교회 3개월이내 주보 1매와 설교 CD 2 회분

제출처

1. Shreveport Bossier Korean Presbyterian Church
1180 Dudley Ln
Bossier City, LA 71112 혹은
2. (Electronically) sbpc990@gmail.com

연락처

유도석장로 (318-349-2347)
박형구장로 (318-268-4228)

제출기한: 2012년 10월 6일

슈리포트보조 한인장로교회

SHREVEPORT-BOSSIER KOREAN PREBYTERIAN CHURCH

인터넷이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실시간 한국방송을 보세요

Familyiptvusa.com

품김없는 고품질 패밀리 IPTV

영화채널 포함 월/\$29.99로 다양한 한국방송을 당일 또는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TV로 시청하세요!

패밀리 IPTV만의 또 하나의 장점 선택보기 (VOD)기능

TV 리모콘 하나로 방송 3사의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8시뉴스/시사/다큐 및 한국최신영화, 어린이 영화, 기독교 설교 등의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마음대로 골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DVD나 비디오를 빌려보시는 것처럼 자유로운 시청이 가능합니다.

KBS / SBS / KBS 1 / KBS 2 / MBC / YTN / SBS ESPN / SBS GOLF
전화: 646-220-8324 이메일: familyiptvusa@yahoo.com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금 받습니다.

45년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한국이 성범죄 공화국이 되었다. 한국은 성범죄로 인하여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말로 차마 옮길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나주도, 통영도, 수원도, 서울도 전국에 안전지대가 없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1992년 '트라우마와 치유'란 딱딱한 제목의 책 한 권이 미국사회를 들끓게 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주디스 허먼 교수는 성범죄 피해 소녀들을 상담하면서 보고 들은 바를 낱말이 폭로했다. 가해자의 70-80%는 가족이나 이웃이란 불편한 진실이

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 도리어 인터넷이나 성인물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 일어나는 성폭력의 문제들이 극심하다.

어떤 사람들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법조계도 앞으로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버리고 있다. 한국은 10년이상이어야 하는데 평균 8년 이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판단을 위해 조사한 2009년 7월부터 2011년까지의 아동 성범죄 사건 212건의

성호르몬을 준다. 영국은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성폭행하면 무기징역을 행한다. 뉴질랜드는 위성 추적 장치로 감시를 한다.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형벌로 별주는 것인가 아니면 격리하여 선도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성폭력 범죄자 관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경은 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하신다. 대부분 다른 피조물들에게 성은 생식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주시는 성은 함께함으로 육체적인 결합과 함께 영적인 결합도 이뤄진다(고전 6:15-20). 인간에게 있어서 성은 가장 친밀한 연합이 된다. 결혼 안에서의 성은 축복이다.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강한 성적인 욕망은 경계하셔(고전7:2-5). 사단이 틈타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성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성경에 나타난 성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표현은 아가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랑이야기는 매우 성적이고 그리고 표현적이다. 하지

28). 7성경은 매춘도 죄라고 하신다. 그 돈은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셨다(신23:17-18). 신약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더럽힐 수 없다(고전 6:15).

8)성경은 짐승과의 성적관계를 금한다. 범하면 죽이라고 하셨다(레 20:15-16). 9)성경은 월경 중에 관계를 금한다. 생명을 피에 있기 때문이다(레17:11). 신약에서도 피는 거룩하다 (행15:29).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이 따른다(레20:18). 10)육체를 상하게 하는 죄를 금한다 (고전 6:19-20).

성경은 성폭력을 절대적으로 금한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성폭력 사건들이 몇 번 나온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동네에 들어온 천사를 범하려고 한다. 남자들이 남자들을 '상관하려는' 동성에 성폭력이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불로 멸망당하는 세대가 되었다.

사사기에도 한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삿19장).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을 하여 찾아서 집으로 오는 도중에 베냐민에 속한 기



성폭력 포화시대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였다.

한국은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나라다. 범무연수원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성폭행(강간)과 성추행범은 2001년도 10,446명에서 2010년 19,939명으로 10년 사이에 100% 가깝게 늘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피해 여성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비율은 6-7%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성범죄는 연간 20만 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을 고려한다고 해도 너무도 충격적이다.

한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 껍데기에서 조사한 바로는 한국인 중에 98%가 한국사회는 성폭력이 심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성범죄 전과자 재범률이 60%를 넘는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범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성문제를 개방해야 성범죄를 줄인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일본이 성범죄율이 낮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은 성범죄가 없는 나라가 아니다. 일본의 성범죄율이 낮다고는 범죄 신고율이 낮아서일 것이라는 평가다. 성문제를 개방해야 성범죄가 줄어진다

평균형량은 3.399년이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원성이 높다.

성범죄 처벌에 대한 다른 나라의 형편은 어떠한가? 미국은 3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싫어한 판사의 말을 비웃음을 한 죄수에게 판사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고 최고로 무거운 576년을 선고한 경우도 있다. 한국 MBC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성폭력 범죄자에게 4천년을 선고된 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Megan's Law를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한다. 7세 소녀이었던 메이건은 이웃에게 성폭행 후 살해당했다. 그래서 성범죄 전과자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해당지역 경찰에 거주지를 신고할 의무가 강제되었다. 2006년도에 제정된 플로리다 주의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은 학교, 교회, 공원 등 어린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의 반경 2천피트 안에 접근할 수 없다. 그 주변에 사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에멘은 11살 남자를 성폭행한 이 발사를 공개처형을 했다. 중국도 14세 미망과 성관계를 맺으면 공개처형을 한다. 독일은 물리적 거세를 한다. 캐나다나 화학적 거세와 함께 여

만 두 남녀사이의 사랑을 통해서 신량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성경에 나타난 성에 대한 표현은 대부분 부정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난다.

성경은 결혼 안에서의 성은 축복하시지만 잘못된 성에 대하여 지적하신다. 1)성경은 근친을 금한다. 그 리스트는 어머니(레18:7), 계모(18:8, 20:11), 자매들(18:9,11), 손주들(18:10), 이모 고모 등으로 계속된다(18:12-17). 2)성경은 동성애를 금한다(레18:22, 롬1:24-28). 범하면 죽이라 하셨다(레20:13). 영적인 죽음으로 연결된다(롬1:27).

3)성경은 강간을 금한다(신 22:23-27). 남자가 처녀, 약혼하지 않은 여자와 관계를 하면 그 여자를 책임지고 결혼해야 한다(신 22:28-29). 평생에 그녀를 버리지 못한다. 4)성경은 결혼 외의 관계를 금한다(출22:16-17, 고전7:2-5; 갈 5:19-21). 5)성경은 간음을 금한다(레20:10, 히13:4). 죽임에 처하게 한다(신22:22).

6)성경은 음란을 금한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셨다(출 20:17). 신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음란죄라고 하셨다(마5:27-

브야에 이른다.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관계하고자' 끌어내려 하니 대신에 그 레위인의 첩을 내어준다. 여인은 성폭행을 당하여 죽는다. 결국은 전 이스라엘이 베냐민지파와 전쟁을 치르므로 그들을 심판한다. 성경은 성폭행을 절단코 용납하지 않는다.

사단은 성을 타락시키고 사람들로 죄악에 빠지게 만든다. 우상숭배가 성적인 타락과 연관이 되어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다. 오늘의 세대는 더욱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지금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와 같다. 성폭력 포화시대에 어린 자녀들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특별히 어린이에게 행하는 성폭행은 한 인생의 생애 전체를 망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모든 세대에 주신 거룩한 사명이다. 자녀들에게 성폭력이 가득한 세계에 살게 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세대로 양육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밋세바를 취해 간음죄를 지은 후 얼마 후에 회개했으며 그 후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치사자 앎다가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도 그 죄 값의 보응은 다윗처럼 받게 되는지요?
-나성에서 김 집사

A: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간음죄를 지은 후 언제 회개했는가? 다윗은 순간적인 정욕에 끌려 남의 부인을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등 무서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40편 1-2절에 나오듯이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이 때 하나님은 나단선지자를 보내어 죄를 깨닫고 회개 할 수 있는 기회와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Irresistible grace)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밋세바를 취해 간음한 후에 거의 1년간을 회개하지 못하고 죄의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죄 값으로 임신된 그 아이의 탄생 후에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여전히 죄를 안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 살며 죄에 대하여 무디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 회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데 이 정도의 일가지고 뭘 그래...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회개해도 보응을 받는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무서운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이 밋세바를 통해 낳은 죄악의 씨인 아들을 병으로 쳐서 죽이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회개한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값은 반드시 보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를 회개했어도 과거의 죄 값은 여전히 보응을 받는다면 우리는 심히 두려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예를 가지고 기독교 일부에서는 철저한 보응론을 들

1년 후에 회개한 다윗...과격하 보응론 연옥설은 틀린 것

고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지만 그가 뿌린 범죄의 씨로부터 반드시 쓴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값은 생전에 철저히 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로마가톨릭교회에서 이러한 교리를 강하게 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신자에게 고행을 하게 하든지 일정기간 특별한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갖지 못한 죄에 관해서도 소위 중간상태인 연옥(Purgatory)에서 얼마동안 고통을 당하며 카타르시스를 받아야 천국으로 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교의 보응론이나 연옥설은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다윗의 예를 들면서 죄를 용서받아도 그 값은 어떤 모양으로든 치러야 한다는 교리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이므로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윗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어서 그것을 모든 신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격하 보응론으로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과 사죄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마귀의 술책이 되기 싫습니다. 만일 과거의 우리의 죄에 대해 일일이 보응을 받아야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죄의 값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Now is the time

제27회 남기주청년연합집회

www.hym.cc

time

[2 Timothy 4:1-8]

일시: 2012년 9월 22일(토), 23일(주일) 오후 7시

장소: 토렌스 조은교회

강사: 이승종 목사 (아깨동무 사역원 대표)

찬양 인도: 윤주형 목사 (전 예수전도단 최요오임 찬양 인도자)

HYM: 714.393.5135(Douglas Kim 대표)
323.459.9832(전정하 목사)
hym21c@hotmail.com

토렌스 조은교회: T) 310.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www.torrancegcc.org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루(Lu)



루족은 라오스의 서북 지역 남우(Namu) 계곡 부근에 타(Tha)강과 벵(Beng)강을 따라 거주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타이어의 서남지역 방언에 속하는 성조어이다. 본래 루족의 고향은 중국이지만 중국인들의 압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설립된 공산주의 정권으로 루왕국은 멸망했고, 많은 루족 사람들이 버마(미얀마)와 태국 북부지방으로 피난해 메콩강을 따라 거주하게 됐다.

삶의 모습
루족은 인도차이나 반도로 오기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 생활양식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루족 사람들 대부분은 농부인데, 이들은 강과 계곡 부근에서 쌀농사를 지으며 이를 양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이들은 농사일을 하는데 물소가 끄는 나무 장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어부가 되기도 하고 솜씨 있는 은세공장이 되기도 한다. 남성들은 유명한 루족 검을 제조할 수 있으며 여성들은 직조와 자수와 같은 것에 특별한 재주를 나타낸다.

루족 남성들은 산속이나 북부 타이족 남성들보다 몸매와 키가 더 크고 힘도 더 세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청색 상의를 입으며; 적색, 노란색, 또는 백색의 띠무늬가 있는 짙은 청색 바지를 입으며, 큰 백색 터번을 두른다. 루족 남성들의 특이하고 생동감 있는 검 춤이 유명하다. 여성들은 수를 놓고 작은 은 조각으로 꾸민 밝은 청색의 상의를 입는다. 여성들은 또한 적색이나 주황색 치마를 입고 터번을 두른다.

루족의 가정에는 조상상이 있는데 이것은 결혼식 때 성적 품행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 루족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 쌍의 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들의 생활계획은 어느 가정 이이 부부의 노동력을 더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루족 마을은 논으로 둘러싸인 약간 높은 지역이나 도로나 작은 길변의 높은 땅에 위치한다. 가족들은 특색을 가진 타이시 더미(pile) 집이며, 대나무를 짚개어 바닥재로 하고 짚을 엮어 만든 초가지붕 가옥이다. 각 마을에는 마을을 지휘하는 수장이 있는데, 이 수장은 쌀농사를 지을 적절한 땅을 골라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사회적 통제가 엄하게 보이지는 않으며,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술이 사용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루족 부족사회는 저지대의 사람들로부터 매우 많은 직접적인 침입을 받아왔다. 부족인들은 이전보다 저지대 사회에 많이 융화되었으며 라오스의 내전에 관여되기도 했다.

신앙
루족 사람들의 80%가 전통 민족종교를 믿는다. 테르바다 불교(Thervada Buddhism)와 전통 정령숭배 사상이 때로 혼합되기도 한다. 루족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물체도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으며, 인간은 복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또한 "토지의 신"이 있다고 믿으며 이 신에 의해 사회에서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들은 조상숭배 의식을 행한다. 신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루족 사람들은 종교적 노래, 의식, 제사 등을 통해 신들을 달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루족은 환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들이 착하게 살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만약 악하게 살면 지금보다 수준이 낮은 동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과거 역사를 통해 루족은 전투와 유혈분쟁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이들은 상처치유와 새로운 영적 소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성경이 모두 이들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1933년에 신약성경이 번역됐으나 오래된 번역으로 인해 현재는 이들이 읽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진척이 느리기는 하나 현재 루족을 위해 한 선교단체가 사역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에 사는 루족 가운데 62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오바마·롬니 9·11 추도식

9·11 발생 11주년을 맞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뉴욕 맨해튼의 '그라운드 제로'는 방문하지 않고 워싱턴DC에서 추도식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백악관에서 당시 희생자들을 추도하면서 묵념한 데 이어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연설하고 9·11 당시 이곳에 추락했던 아메리칸항공 77편 여객기의 희생자 184명을 기리는 메모리얼 거든을 찾는다. 또 메릴랜드 주 베테스다 인근 월터 리드 육군병원을 방문해 부상 장병을 위로할 예정이다.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주 방위군협회(NGA) 연례 회의에 참석해 연설한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의회에서 별도의 추도식을 한다. 2008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민주당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는 뉴욕 맨해튼의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추도식에 함께 참석했으나 올해는 정지인 참석이 배제돼 둘 다 불참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가 9·11 테러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신성모독 파키스탄 소녀, 보석으로 풀려나

신성모독을 이유로 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체포, 구금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던 파키스탄 사법당국이 결국 소녀를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파키스탄 법원은 7일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도 소녀 린사 마시흐(14)에게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금은 100만 파키스탄 루피(1만640달러)로 정해졌다. 1억8천만 인구 중 97%가 이슬람교도인 파키스탄에서 코란 소각, 마호메트 모욕 등 신성모독은 최고 사형에까지 처해질 만큼 엄격히 다뤄진다. 이 때문에 이번 보석 허가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룬중추권을 잃는 것으로 알려진 마시흐는 지난 8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도 소녀 린사 마시흐(14)에게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월 11일 이슬라마바드 외곽의 한 슬럼가에서 코란 구절이 있는 종이를 태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어린 나이인데도 장애까지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 구명 운동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지난 2일에는 한 이슬람 성직자가 코란 몇 장을 불 탄 종이 가 방에 넣어 소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석방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영국, 가장 많은 신생아 이름은 무함마드

2011년 한 해 동안 영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붙여준 이름 중 가장 많은 이름은 무함마드였다고 파악됐다. 영국 정부 주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무함마드가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었고, 2위는 해리(7523명), 3위는 올리버(7007명)였다. 무함마드가 상위권에 오른 것은 2007년부터였다. 이후 2009년 1위, 2010년 2위를 기록했다. 이는 무함마드에서 약간 변형된 모함메드, 모하메드, 무함메드 등을 포함한 기록으로 지난 해 7,907명에게 붙여진 이름이 되었다.

이는 영국 내의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영국 내의 이슬람 인구는 1990년에 전체 인구의 2%였으나 2010년에는 4.6%, 2030년에는 8%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붙여준 이름 중 가장 많은 이름은 무함마드였다고 파악됐다.

"기부하면 행복" ...미 교회 사칭 사기 등 장

미국에서 종교단체의 자선 활동을 방해해 사람들의 지갑을 터는 온라인 사기수법이 등장했다고 연합뉴스 인터넷판이 10일자로 보도했다. 교회에 기부자 이름 게시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알려주면 상품권을 준다는 광고를 올려 기부금을 챙기고 달아나는 수법이다. 최근 미국 기독교의 심장부인 에



미국에서 종교단체의 자선 활동을 방해해 사람들의 지갑을 터는 온라인 사기수법이 등장했다고 연합뉴스 인터넷판이 10일자로 보도했다.

틀랜타 지역에서 이 같은 사기 사건이 발생해 당국과 언론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미국 최대의 생활정보 사이트인 '크레이그 리스트'에는 조지아 주 라그랜지에 있는 한 '퍼스트 침례교회'의 이름을 도용한 게시물이 올랐다가 해당 교회의 신고로 삭제됐다.

문제의 게시물에는 "우리는 불우 아동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며 교회에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사회보장번호만 알려주면 상품권을 주겠다고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광고를 뒤늦게 접한 교회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교회 측은 "주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감으로 삼는 사기 행위"라고 분노했다.

크레이그 리스트는 신고를 접하고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다른 여러 정보 사이트에는 같은 게시글이 남아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고 10일 지역 언론은 전했다.

이란, 나다르카니목사 다른 혐의로 잇달아 재판

사형 선고를 받고 장기간 투옥되어 있는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의 문제는 참 긴 시간이 지나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미 배교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는 나다르카니는 지난 9월 8일, 또 다른 혐의로 법정에 세워져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새로이 재판을 받게 된 혐의는 국가안보를 저해했다는 혐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이처럼 애매하고 근거도 불충분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되자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더욱 그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제 3, 제 4의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새로운 혐의란 반복적인 공간과 금품갈취 혐의이다. 또한 그가 교회를 이끌어 왔던 것에 대해서는 부패의 운상이 되는 모임을 이끈 혐의도 추가해재판이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그의 연구지인 길란주의 정치 및 보안담당 부지사인 칼람 알리 레즈바니는 "그가 단지 배교죄만 지은 것은 아니다. 그는 시온주의자이고, 역적이며, 국가분란자이다"라고 밝혀 정부가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를 처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또 다른 빌미를 찾기 위한 무리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형 선고를 받고 장기간 투옥되어 있는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의 문제는 참 긴 시간이 지나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 가톨릭계대학교에 이슬람 학생 증가

미국에서 자녀들을 가톨릭계 대학에 진학시키는 이슬람 가정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다. 그 이유는 다른 일반 대학에 비해 이슬람계 학생들에게 동료 학생들이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덜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여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는 가톨릭계 학교이지만 꼭 가톨릭 신자만 다니는 것은 아니며 어느 종교가 되었든 종교를 믿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이슬람 신자들에게 대해서도 편하게 대해준다고 답했다. 데이턴 대학교에 다니는 이 학생은 종교적인 분위기와 각기 다른 믿음이 존재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반면 일반적인 대학에 다니는 이슬람계 학생들은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차별 당하고, 심지어 박해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가톨릭계 대학에 다니는 이슬람계 학생들의 수는 크게 늘어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자녀들을 가톨릭계 대학에 진학시키는 이슬람 가정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다.

아일랜드, 가톨릭 영향력 크게 약화

가톨릭국가로 알려진 아일랜드 국민들의 가톨릭 신앙이 급격하게 시들어가고 있다. WIN-갤럽이 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일랜드 사람들의 가톨릭 신앙은 급격히 시들어가고 있으며, 아일랜드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낸 나라는 베트남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일랜드 국민들 가운데 자신이 종교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2005년 전 국민의 69%에서 2011년에는 47%로 감소했다. 아일랜드는 가톨릭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가톨릭의 정치적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가톨릭의 영향력이 급감한 것은 가톨릭 신부들의 성관련 스캔들이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일랜드의 마틴 대주교는 부모의 가톨릭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은 이제 끝났다고 판단했다.



아일랜드 국민들 가운데 자신이 종교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2005년 전 국민의 69%에서 2011년에는 47%로 감소했다.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h3>		<h4>가톨릭 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정희수 교무국장: 케미턴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3시: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7:00-8:00 목요기도: 오후 8:00-9:00</p> <p>Tel: (718) 229-7883, 468, 465-679-4771 41-44 46th St, Flushing, NY 11355 E-mail: gpcny@nyfco.com</p>	<h4>낙원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4시: 오전 8:45 주일3시: 오전 11:00 목요기도: 오후 7:0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45</p> <p>Tel: (718) 482-7788, Cell: (917) 482-2887 41-82 Queens Blvd., Rego, NY 11360 E-mail: nyfco@nyfco.com</p>			
<h4>뉴욕셋째마녀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3시: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00</p> <p>Tel: (718) 484-2282, (718) 484-2222, Fax: (718) 484-4848 40-75 Penner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fco.com</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3시: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45</p> <p>Tel: (718) 484-4100, Fax: (718) 484-4122 40-66 46th Ave., Queens, NY 11364 www.nyfco.com</p>	<h4>뉴욕빌라벨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택원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3시: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00-9:00 목요기도: 오후 8:00-9:00</p> <p>Tel: (718) 484-1877, Fax: (718) 484-1888 2 Beason Hill Blvd., Port Flushing, NY 11360</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철 주일14시: 오전 10:30 주일3시: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8:00 목요기도: 오후 8:00 목요기도: 오후 8:00</p> <p>Tel: (718) 484-2810, Fax: (718) 484-3411 40-9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fco.com</p>	<h4>뉴욕순복음안대교회</h4> <p>담임목사: 이원호 주일14시: 오전 7:30 주일3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p> <p>Tel: (718) 484-7882, Cell: (718) 484-7777 40-9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fco.com</p>	<h4>뉴욕중부교회</h4> <p>담임목사: 김계원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3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45-9:00</p> <p>Tel: (718) 484-7777, Fax: (718) 484-7777 282-10 News Building, 13th Ave., NY 11362</p>	<h4>뉴욕초대교회</h4> <p>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3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00-9:00</p> <p>Tel: (718) 484-3021, Fax: (718) 484-4774 46 St, Grand Ave., Queens, NY 11360 E-mail: nyfco@nyfco.com</p>
<h4>뉴욕효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국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3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p> <p>Tel: (718) 484-4758, 4825, Fax: (718) 484-3111 42-75 130th St, Flushing, NY 11355</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14시: 오전 11:00 주일3시: 오전 8:00 수요일: 오후 8:00-9:00 목요기도: 오후 8:00-9:00</p> <p>Tel: (718) 484-4100, Fax: (718) 484-4122 40-66 46th Ave., Queens, NY 11364 www.nyfco.com</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14시: 오전 10:30 주일3시: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p> <p>Tel: (718) 484-1071, Fax: (718) 484-3411 37-47 164 St, Flushing, NY 11358</p>	<h4>롱아일랜드성결교회</h4> <p>담임목사: 김석형 주일14시: 오전 11:30 주일3시: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p> <p>Tel: (718) 484-3333, Fax: (718) 484-3333 360 Edison Ave., Mastic, NY 11756</p>	<h4>메디니교회</h4> <p>담임목사: 장동환 주일14시: 오전 7:30 주일3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p> <p>Tel: (718) 484-3880, Cell: (718) 484-3880 401 4th Ave., Garden City, NY 11542 E-mail: medini@nyfco.com</p>	<h4>어린양교회</h4> <p>담임목사: 김수백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3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p> <p>Tel: (718) 484-4328, Fax: (718) 484-3432 69-18 47th Ave., Woodside, NY 11377</p>	<h4>유니온연합감리교회</h4> <p>담임목사: 박계원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3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p> <p>Tel: (718) 484-4444, Cell: (718) 484-4444 46 St, Grand Ave., Queens, NY 11360 E-mail: nyfco@nyfco.com</p>
<h4>주비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근 주일14시: 오전 12:30 주일3시: 오전 6:00 수요일: 오후 8:00 목요기도: 오후 8:00</p> <p>Tel: (718) 484-4888, E-mail: nyfco@nyfco.com 70 Flushing Ave., Manhattan, NY 11355</p>	<h4>중부뉴저지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원호 주일14시: 오전 11:00 주일3시: 오전 8:0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p> <p>Tel: (718) 484-4100, Fax: (718) 484-4122 442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p>	<h4>핀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3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p> <p>Tel: (718) 484-3040, Fax: (718) 484-7788 142-17 Flushing Ave., Flushing, NY 11355 www.nyfco.com</p>	<h4>핀즈한인교회</h4> <p>담임목사: 이규철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3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p> <p>Tel: (718) 484-7100, Cell: (718) 484-3880 89-00 22nd Ave., Bayside, NY 11360 www.nyfco.com</p>	<h4>한마음침례교회</h4> <p>담임목사: 박재이름 주일14시: 오전 11:30 주일3시: 오전 8: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p> <p>Tel: (718) 484-7100, Cell: (718) 484-388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nyfco@nyfco.com</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4> <p>L.A.: Tel: (323) 985-0009 N.Y.: Tel: (718) 888-6400 Fax: (718) 888-0074</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4> <p>L.A.: Tel: (323) 985-0009 N.Y.: Tel: (718) 888-6400 Fax: (718) 888-0074</p>
<h4>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h4>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박경남 주일14시: 오전 11:00 주일3시: 오전 8:00 수요일: 오후 8:00 목요기도: 오후 8:00</p> <p>Tel: 5277-1488, Fax: 2204-8242 Rua Josefa Piza, 281 Camboriú, P. Paulo Cap 91628-91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종원 주일14시: 오전 9:00 주일3시: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요기도: 오후 8:00</p> <p>Tel: 011-51-11-2879-8223, 2879-5261 R. Lúcio Alves W. Liberdade SP CEP 01508-018</p>	<h4>브라질 새사망교회</h4>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3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p> <p>Tel: (51) 3368-9764, 9822-1188 RUA SANTA CRUZ, 285-PARQUE SÃO PAULO-SP-BRASIL</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병연 주일14시: 오전 11:00 주일3시: 오전 8: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기도: 오후 8:30</p> <p>Tel: (54) 114-531-1758 AV. CALABAZO 1353 CAP.FED., B.R.A.,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담임목사: 황희상 주일14시: 오전 11:00 주일3시: 오전 8:00 수요일: 오후 8:00 목요기도: 오후 8:00</p> <p>Tel & Fax: (56) 2155-7628, (56) 2155-8339 Santiago Curvo - 3 Casilla 253 Chile</p>	<h4>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h4> <p>선교사: 임병관 목사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3시: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00 (1, 2, 3, 부설교회 별도)</p> <p>Tel: (596) 121-574-896 E-mail: nyfco@nyfco.com Carverton MO, 1901, Anacostia-PARAGUAY</p>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05.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가?”라고 물어 볼 때 종종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4:8)는 답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대답은 근본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왜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창조과학 강연을 할 때 ‘우리 인류의 원래 조상이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라고 대답합니다. (1)아메바 (2)유인원 (3)아담과 하와 (4)? 이렇게 4지 선다형으로 질문을 해도 대답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만 인식하고 있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 근본적인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형상”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창1:26-27).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흙으로 빚어 내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습니다(창2:7, 21-22). 개와 고양이는 말씀으로만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더 많은 노력을 들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과정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을까요? “사랑”이 유일한 대답이라면 하나님은 희생당한 독생자 예수님보다 창조된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다는 이상한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가까이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주

고 있는데 눅3:38은 아담의 조상을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NIV: Adam, the son of God). 세상에는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기의 몸을 버려 그 자녀를 구한 부모들의 예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하나님의 형상” 의미 모르면 복음의 참 의미 몰라 하나님의 인간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



하나님의 형상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누가복음 3:38)

님의 형상(자녀)인 사람이 영원히 죽게 되자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지에 대한 분명한 답은 근본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형상” 즉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2.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진 결과

전도자들의 내용을 보면 대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은 없지만 내가 누구 길래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하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귀영

화를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흔히 듣는 질문이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인데 준비된 대답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근본적인 대답을 빠뜨린 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논리적이지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 창조자에게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분에게 생명과 부와 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려고 그 분께 가야한다는 말은 우리의 또 다른 욕심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면 그 분이 내 아버지가 아닌데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단 말인가요?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도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비열한 사람 아니면 바로 돌 중에 하나입니다(시아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관계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대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모른 채 예수를 믿으며 부귀영화를 바라게 되는 마저 보험을 사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서 대부분의 전도지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원래 누구였는지를 말하게 되면 자연스레 인류의 기원에 대한 문제가 따라 나올 것이고 진화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전도의 시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무엇이 믿는지, 왜 믿는지 근본적인 대답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진

화론이 영생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형상”을 흐리게 하는 것

“하나님 형상”에 대해 분명한 이해 즉,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이 적혀 있는 성경의 창조기록에 대해 신뢰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창조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창1장 26-27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쉽고 간단한 설명인 눅3장 38절 그 위는 요 그 위는 이요 그 위는 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이 별의 의미가 없는 구절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구름을 잡는 것처럼 모호하게 한 주범은 성경의 처음 열한 장을 사실에 근거한 역사기록이 아니라, 시나 설화나 역사 혹은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기 위해 여기저기에 있었던 기록들을 짜깁기하였다고 생각하게 한 사상일 것입니다. 이 사상의 근본은 성경에 없는 수십억 년의 긴 시간 위에 자리 잡은 진화론입니다(물론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라 허구입니다).

대다수의 한인 크리스천들은 진화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크리스천들이 성경과 다른 수십억 년을 사실로 믿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진화를 믿고 있습니다(창조를 믿는다고 하지만 고생대-중생대-신생대의 역사를 사실로 믿는 것이 현실적으로 진화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들은 진화론의 믿음으로 만든 상상의 시대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지층들은 거의 대부분 노아홍수 때 만들어졌습니). 여기에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 성경을 떠난 여러 가지 창조이론들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의 사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서 대부분의 전도지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원래 누구였는지를 말하게 되면 자연스레 인류의 기원에 대한 문제가 따라 나올 것이고 진화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전도의 시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무엇이 믿는지, 왜 믿는지 근본적인 대답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진

화론이 영생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4.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자기 아버지인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할 것이고 창조주이며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그 분은 창조자며 사람을 “자기형상”으로 지은 분입니다. 그러나 영생복락 부와 귀가 있고 고통과 아픔이 없고, 편안하고 물질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아닌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곳이 정말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막7:21-22).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39)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성품리더십(7)- 감사의 리더십

내셔널(National)과 파나소닉(Panasonic)의 설립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1894-1989)는 일본식 경영의 창시자라고 불립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비결을 3가지 은혜 덕분이라고 말했지요. 첫째는, 너무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인생의 쓴맛을 일찍이 어린 나이에 맛보았기 때문에 겸손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고, 둘째는 천성적으로 몸이 약한 탓에 평생 운동으로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된 것, 셋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짧은 학력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여기며 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어떤 사람에게든 재앙으로 다가오지만 감사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에피테투스(Epictetus)는 “인간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내’로 변화시키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과감히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행복의 비결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새로운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학자인(Albert Bandura)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환경이 상호영향을 미친다는 상호결정론(reciprocal determinism)을 주장했습니다. 상호결정론은 세 요소 중 한 가지가 바뀌면 나머지 두 요소도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 늘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될수록 주위에 이와 유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환경)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환경이 부정적이어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니 환경과 생각이 부정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불평불만 속에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설 수 없습니다. 현실에 만족함이 없어도 미래의 좋은 상황을 내다보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람들은 믿고 따르지요.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의 좋은 결과들을 그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됩니다. 감사의 리더십을 소유한 지도자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말로 감사하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감사와 행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모이고, 공동체는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지도자가 표현한 감사가 메아리가 되어 좋은 성품의 리더십으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로 표현할 것인가, 짜증과 낙심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감사와 불평의 기로에 섰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룹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아픔과 슬픔과 사랑을 통합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감사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성공을 통해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아이를 감사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녀로 양육하고 싶으신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서로에게 매일매일 감사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어 줘서 고마워요” “우리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 애써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부부간에 감사의 통백을 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감사의 자녀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존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주세요.

부모의 감사를 통해 자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회기도회: 오후 8:00(EM) 목회기도회: 오후 8:00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EM)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맨얼교회 담임목사: 정용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11:45 목회기도회: 오후 1:30 목회기도회: 오후 6:00(EM)	보스완장로교회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12:00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7:00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11:00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승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EM)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영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전 7:30 목회기도회: 오후 8:00(EM) 목회기도회: 오후 8:30	시카고에브레교회 담임목사: 김진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	알란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4:00 주일3부예배: 오전 7:30 목회기도회: 오후 8:00(EM)	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업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앨파스델린교회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1부예배: 오전 8:00(EM)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목회기도회: 오후 7:30 목회기도회: 오후 8:00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8:00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재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EM)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EM)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EM)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병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2:3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EM)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EM)	타코마사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EM) 목회기도회: 오후 7:00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EM)
렘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EM)	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EM)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7:45 목회기도회: 오후 8:00(E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30(EM)	아가페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30(EM)	에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7:00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준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8:00(EM)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EM)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

"성경 역사와 지리"...강사 김주경 목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영성훈련 '성지순례' 특강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가 개강 영성훈련 특강으로 마련한 "성지순례 특강"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열렸다. "성경의 역사와 지리"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강사 김주경 목사(암노스선교회 대표)는 이스라엘과 영국에서 18년간 선교사로 사역했으며 예상합동 GMS 사무총장을 역임한 성지순례의 권위자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성지순례 특강에서 김주경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첫날 김주경 목사는 성경지리의 필요성,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 이스라엘의 지리적 개관과 경계, 지형구분, 대륙곡, 요단동편 고원, 기

타 동서지역, 주요도로, 지질과 토양, 기후, 물, 농업과 목축, 고고학 연대기와 이스라엘 역사 등에 대해 개

괄적으로 설명하고 지리연구에 들어가 해안평야와 지역구분으로 나눠 지형의 구조와 기후, 경제에 대

해 설명하고 베니게, 악고, 돌평야, 사론평야, 블레셋 평야에 관해 강의했다.

풍부한 지식과 달변으로 4시간 연속강의를 한 김 목사는 이번 특강 강의시간에서 배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학생 자신들이 내용을 재정리함으로써 본인의 지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주최하는 '2013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의 개최장소가 예루살렘으로 결정돼 이번 성지순례 특강 참석자들은 내년 세미나를 마치고 있게 될 성지순례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이번 성지순례 특강 전문은 앞으로 본지에 연재될 예정이다. (유원정 기자)



캠벌랜드장로회 한인 동부노회 창립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캠벌랜드장로회 한인 동부노회 창립노회 노회장 박진수 목사, 부노회장 양부환 목사

캠벌랜드장로회(Cumberland Presbyterian Church) 동부노회가 지난 10일 창립노회를 갖고 첫 한인 노회로 출발했다.

이날 △노회장: 박진수 목사(뉴욕한인교회) △부노회장: 양부환 목사(뉴저지 참소망교회) △서기: Forest Prosser 목사 △부서기: 조상숙 목사 △회계: 고재정 목사(뉴욕나눔장로교회) △노회위원회: 목사/고재정 박진수 양부환, 평신도대표/이의건 전병선 서준자 노회조직을 구성했다.

이날 한인 동부노회 조직일정은 남동부대회 서기 Forest Prosser 목사가 주도했으며 노회 회원 공표 언약, 조직선언 후 Christian Smith 테네시조지아 노회장에 축사했다. 스미스 목사는 "한인노회가 결성돼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다"며 "선교와 예배, 봉사에서 리더가 되기를 바라고 노회는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라며 축하했다.

이어서 드린 예배는 양부환 목사

인도로 기도 박진수 목사, 성경봉독 조상숙 목사, 특송 한길교회 찬양대, 설교 George Estes 목사, 축도 고재정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Estes 목사는 사도행전 13장 2-4절을 본문으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며 그때 작은 섬에서 시작된 바울의 첫 선교여행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큰물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지만 성령을 받고 제자사역을 감당했다"며 "동부노회의 시작은 새롭고 신선한 역사이다. 2021년 시작된 캠벌랜드 교단은 성령의 힘으로 시작됐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적 복종으로, 목적 있는 봉사로, 설득력 있는 말씀 나누기로 전도에 헌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노회는 뉴욕일원에 현재 7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Now is the Time' ...이승중 목사 설교

HYM, 사우스베이지역 첫 청년연합집회

남가주청년연합회(HYM·회장 더글라스김)는 오는 22일(토)과 23일(주) 양일간 오후 7시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바울 목사)에서 '제27회 청년연합집회'를 'Now is the Time'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더글라스 김 회장은 "이번 집회의 주제인 'Now is the Time'은 지금이 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라는 의미이며 그동안 HYM집회의 주제였던 '근심 뚫고 하이킥', 'Kingdom of God', 'Lost', 'Hear Am I', 'Mission Possible'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집회의 강사는 이승중 목사(아깨동무사역원 대표)가 전하게 된다. 교회를 세워 성장시킨 후 후진에게 물려주는 훌륭한 목회자로 김승욱, 김한오, 노진준, 노창수, 박형은 목사 등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이 목사는 설교에서 문화, 선교, 역사, 청년 등 자신이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여긴 4가지 키워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회장은 "사우스베이지역에서

HYM 집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기대가 된다"며 "집회장소를 제공하는 토렌스조은교회는 청년이 120여명이나 모이는 다이나믹한 교회"라고 말했다.

워십 인도는 전 예수전도단 화요 찬양모임 리더였던 윤주형 목사(울리브트리 미니스트리)가, 특송은 에스더 최 재애와 신상민 형제, 선교사 자녀들의 밴드인 '리빙 캔버스' 등이 맡는다.

전정하 목사는 "사우스베이지역은 교회감등으로 상처들이 많은 지역이며 교회들 간에도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번집회에 청년들을 통해 사우스베이지역이 연합되는 계기가 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집회를 통해 믿지 않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기회가 되며 믿는 청년들도 집회를 통해 믿음이 더 굳건해져 사우스베이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길 바란다."

▲문의: (714)338-5135, (323)459-9832

(박준호 기자)



제27회 HYM청년연합집회를 앞두고 HYM스텝들과 집회장소를 제공한 토렌스조은교회 청년스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예수비전선교회 비전트립 팀이 올랜도를 방문했다.

올랜도 비전트립 예수비전선교회

일본교회의 부흥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선교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의 진로를 함께 열어가고 있는 '예수비전선교회'(JesusVisionMission, 대표 조성원 목사) 소속의 일본 유학생 선교사들과 본부 스텝 11명이

이노비 후원 베네티콘서트

소외된 이웃에게 무료 음악회로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이노비(EnoB, 대표 강태욱)를 후원하기 위한 베네티콘서트가 지난 8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맨해튼 하이라인로프트(The Highline Loft)에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와 캐나다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주디강, 드러머 임주찬, 베이시스트 이준삼이 협연했다.

또한 첼시에서 운영 중인 갤러리호(관장 김태현)에서 미술품 전시로 참여해 음악과 미술 작품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자리가 됐다.

사진은 이노비 베네티콘서트의 연주자들과 스텝들, 봉사자들. (기사제공: 이노비)

올랜도충현교회(담임 김석원 목사)의 '비전학사'에 머무르며 비전트립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예수비전선교회'는 한국의 초교파적인 지역교회 연합체(Local Church community)로 청주를 중심으로 전국의 70여개 교회가 연합하여 2006년부터 지난 7년 동안 일본 후쿠오카 북강(福岡) CCC복음선교센터(대표 구원준 선교사)를 중심으로, 일본의 여러 지역과 교회들에 1천명이 넘는 단기선교 비전트립 팀과 지역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학생 전문인 선교사 60명을 파송해 일본교회의 부흥을 실제적으로 돕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기사제공: 올랜도충현교회)



사진은 이노비 베네티콘서트의 연주자들과 스텝들, 봉사자들.



LAC저스 야구장에서 열린 미 주류교계가 주관한 대규모 영적 대각성 전도 집회 하베스트 2012에서 그렉노리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다저스 야구장서 '하베스트 2012' LA 열려

미 주류교계가 주관한 대규모 영적 대각성 전도집회 '하베스트 2012'가 8일과 9일 양일간 LAC저스 야구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8일 오후6시 4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하베스트 2012'는 데이빗 크라우더 밴드, 제레미 캠프 등이

나서 찬양을 인도했다. 이들 찬양밴드들이 찬양인도를 할 때는 다저스 야구장 객석을 가득 메운 청중들이 하나가 돼 열정적인 찬양으로 하나 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어 그렉노리 목사(하베스트크리스천펠로우십교회)가 누가복음 15:11-32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그렉노리 목사의 설교가 마친 후 결단의 시간을 가졌는데 각 민족별로 다저스야구장에 마련된 색션으로 모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렉노리 목사가 주석을 담은 신앙성경을 나눠주기도 했다.

한편 '하베스트 2012'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에인젤스 스타디움에서 오렌지카운티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린바 있다. (박준호 기자)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앱 출시

소아과전문의 이상원 박사

소아과전문의이며 "부모도 반의사가 되어야 한다-소아가정간호백과"(www.koreapediatrics.com)의 저자 이상원 박사가 본서제 1권 '소아청소년(0-18세) 응급의료'를 앱으로 출시했다.

이 앱을 제작한 한양대학교 컴퓨터학과 김한우 교수와 (주)코드쓰리 박희찬 사장은 이 앱이 전 세계 8천만 한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상에서 소아 청소년 자녀들에게 화상, 절상, 골절, 고열, 기도내이물, 복통 등 응급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의사의 진료를 받기 전

현장에서 1차적 최초 응급처치 및 치료를 하는 법을 이 앱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앱은 물론 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집, 학교, 야외 전 세계 어디에서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열람할 수 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앱 구글 플레이 갈락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나 곧 애플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상원 박사(drsangwonlee 블로그)는 앞으로 총 8만 쪽 되는 "부모도 반의사가 되어야 한다-소아가정간호백과"의 전 내용을 Apps와 Ebook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구상 중에 있다.

▲연락처: (860)456-4347

JoyLA.com

추제별성서대전

80% OFF

32 Set 한정특가판매 (1set 12권)

~~\$750.00~~
\$150.00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스트롱 원어코드

NEW 성구사전

개역개정판

360,000점이 수록된 혁신적인 성구사전
스트롱 코드 번호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원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전

로고스 STRONG CORD

히브리어·헬라이어 사전

HEBREW-GREEK DICTIONARY

개역개정판

로고스 NEW 성경사전

LOGOS BIBLE DICTIONARY

개역개정 개역한글 새번역 공동번역

히브리어, 헬리어를 필기할, 원어에 가장 가까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함
어려운 단어를 구별마다 대표어이며 명기함, 단어를 스트롱코드를 붙여 활용도를 높임
단어에 현재와 영어를 명시하여 이해를 도움

조이기독백화점 |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기독교부합창단 제 11회 정기연주회

뉴욕기독교부합창단(지휘 소유영, 반주 김정윤) 제 11회 정기연주회가 9월 30일(주) 오후 7시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열린다. '찬양으로 전하는 기쁜 소식'이란 제목으로 복음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전도폭발 훈련과 사역리를 토대로 5가지 주제인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하나님, 예수님, 믿음, 사랑을 선택했다. 나레이터를 통해 5가지 주제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찬양을 듣게 된다. 또한 아름다운교회 여성합창단이 찬조 출연한다.

▲문의: sobello@gmail.com

뉴욕병원선교회 한가위 효도잔치

뉴욕병원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한가위를 맞아 10월 6일(토) 롱아일랜드 한국요양원에서 효도잔치를 갖는다. 이번이 13차 효도잔치로 국악, 사물놀이, 색서폰 연주, 부채춤, 장고춤 등의 특별공연이 있게 된다. 선교회 측은 이번 효도잔치에 후원자도 찾고 있다.

▲문의: (914)393-1450

뉴욕교협 회관이전추진위 구성 발표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이 지난 4일 가진 임원회에서 회관이전추진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위원장 장석진 목사, 위원으로 △중경회장단: 김원기, 신현택, 장석진 목사 △임원: 양승호 회장, 김종훈 부회장, 이희선 총무, 현영갑 서기 △청소년센터: 한재홍, 최예

식 목사 △이사회: 이대연, 이주의 장로 △법규위원장 이병홍 목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회관이전 추진위원회 구성은 지난 8월 28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다.

(유원정 기자)



황성주 박사가 WOW 전인치유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치유와 회복, 풍성한 열매 체험

황성주 박사의 W.O.W 전인치유세미나

홀리 비저너리 황성주 박사의 W.O.W(Way Of Wonderful Living) 전인치유세미나가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 예루살렘성가대실에서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렸다.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한 자들에게 황 박사는 '자아실현의 꿈(My dream)'을 버리고 '하나님나라 꿈(Kingdom dream)'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써야 함을 강조하며 육신의 치유 뿐 아니라 영적인 치유에 대해 자신의 회심 체험을 간증했다.

강의는 삶의 전 영역을 다룬 세미나로 황 박사는 △과거를 치유하라 △미래를 바라보라 △현재를 바꾸라 △최적건강을 갖추라 △관계를 치유하라 △질서를 회복하라 △자녀를 지키라 △재정을 넘치게 하라 △일터를 변화시켜라 등 9개 주제를 6시간에 걸쳐 압축해 전했다. 황성주 박사는 현재 사랑의클리닉원장, (주)이름 생명과학연구원 원장, NGO 국제사랑의봉사단 국제대표, 꿈의학교와 월드리더십센터 이사장, 꿈이있는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지혜로 주님 베푸신 잔치집에 참석하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 뉴욕노회(노회장 조문선 목사) 제 71회 정기노회가 지난 11일 오전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노회에서는 목사후보생 성동석, 박성권 씨의 고시청원과 퀸즈장로교회 부목사인 안재현 목사 회원이 가입이 허락됐다.

사의 인도로 기도 흥준식 목사, 성경봉독 박해장 목사, 설교 조문선 목사, 성찬예식(집전 허상희 부노회장), 축도 이규본 목사, 광고 이영상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문선 목사는 “잔치집을 찾는 지혜”(잠9:1-18)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나쁘게 만들었다”며 “하

남님께서 우리가 잘 살도록 잔치집을 완벽하게 만드셨으며 그중에서 가장 풍성한 집은 교회”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다 목적이 있다. 죄인이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잔치집에 우리를 부르실 때 지혜를 가지고 장성한 믿음의 모습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목사는 또 “부르는 곳이 아무리 많아도 다 잔치집은 아니므로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말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의 초청에만 응답하고 나갈 때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노회에는 뉴욕, 동, 서, 뉴저지 등 4개 시찰 28교회에 공로목사, 원로목사, 담임목사 28명, 기관목사, 부목사 등 목사 48명과 장로 7명, 선교사 3명, 군목 1명 등이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KAPC 뉴욕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기독교군인회가 주최한 이필섭장로 특별강연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뉴욕기독교군인회, 이필섭장로 특별강연회

뉴욕기독교군인회(회장 김진희 목사)가 주최한 이필섭 장로 특별강연회가 지난 10일 뉴욕예은교회(담임 김명옥 목사)에서 열렸다. 2부 강연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형택 목사 인도로 기도 이준호 목사, 성경봉독 이명재 집사, 말씀 윤성태 목사(“이만한 믿음”, 마8:5-13), 특송 유태웅 목사, 봉성기도 이준성 목사, 인사/광고 김진희 목사, 축도 김명옥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현재 세계기독교인연합회 회장직을 수행중인 이필섭 장로는 육사 16기로, 합참의장 대장, 2군 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기독교인회는 탈북명명 김현식 교수를 초청해 추계특별강연회를 갖는다. 김현식 교수는 평양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평양말사전, 남북통일말사전 등을 출간했다.

(유원정 기자)



퀸즈성인대학 개강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부설 성인대학이 지난 11일 개강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다. 예배는 고부영 전도사의 사회로 허경화 장로가 기도하고 안재현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딤후3:14-1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번 학기에는 건강체조, 생활영어, 한글성경, 노래교실, 특강(소설, 건강, 법률, 미용), 컴퓨터, 수목화 등이 강의되며 점심식사 후엔 뜨개질과 탁구가 진행된다.



이영훈 목사 뉴욕순복음연합교회 일일성회

오전에 뉴욕교협 초청 조찬간담회를 가진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가 10일 저녁에는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일일성회를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창28:18-2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영훈 목사는 “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 ‘교회 중심의 신앙’ △모든 물질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뉴욕교협 초청 이영훈 목사 조찬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뉴욕교협 되길”

10일 뉴욕교협,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간담회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이 주최한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초청 조찬간담회가 지난 10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양승호 목사는 이영훈 목사가 2박 3일 짧은 뉴욕일정 속에서도 교협 초청에 응해준 것에 감사하며, 남은 일정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이영훈 목사를 소개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사도행전 13장을 본문으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뉴욕의 목회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뉴욕으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영적 의미를 깨닫기 바란다”며 “이 시대 뉴욕과 유사한 안디옥교회는 첫째, 다양한 배경을 가진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으며 둘째, 교회의 본질인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였으며 셋째, 교회 탄생과 부흥, 사역 모두가 성령의 역사이므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동일하게 이뤄지고 넷째, 선교사 파송을 시작한 교회였다고 말했다. 또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많은 발전을 했지만 섬김의 역할이 부족하고 분열과 대립이 만연한다”고 말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WCC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종교다원주의나 융공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그 단계에 일부가 진보적(종교다원주의 혹은 융공)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그 단체를 전체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뉴욕의 목회자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지도자로 쓰임 받기 위한 사명을 가졌음을 깨닫고 뉴욕교협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기를 바라며 이 모든 일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축도는 송병기 목사가 맡았다.

(유원정 기자)

찬송가 보급, 찬양사역자·찬양팀들을 돕기 위한

찬양선교 음악회

- 일시 : 2012년 10월 7일 (주일), 오후 6시
- 장소 : 주사랑선교교회 (17054 Bixy Ave., Bellflower, CA 90706)
- 문의 : (562)714-0691(영육구원), 무료입장
- 출연팀 : 캘리포니아 메스터 코랄, LA 남성 선교합창단, 소노리스 싱어즈, 이화 보컬 앙상블, 예람 피아노 트리오, 바리톤 장상근

총회장 후보에 강신권 목사 선출

제79회 KPCA 서노회...김형균 전도사 등 3명 목사안수

제79회 KPCA 서노회(노회장 이상훈 목사)가 6일 세계성경장로교회(담임 강신권 목사)에서 정기노회를 열고 내년 KPCA 총회 총회장 후보



제79회 KPCA 서노회가 세계성경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목사안수식에서 안수받은 목회자들.



제14차 미주목양장로컨퍼런스가 세리토스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목사와 장로의 행복한 동행” 주제

제14차 미주목양장로컨퍼런스, 세리토스장로교회서

제14차 미주목양장로 컨퍼런스가 ‘목사와 장로의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10일부터 12일까지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부산호산나교회 국제목양지역원(원장 최홍준 목사) 주최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첫날 부산호산나교회 담임 홍민기 목사가 ‘다음세대대를 위한 목양사역’을 최홍준 목사가 ‘시대적인 요청: 차세대와 목양장로’로 강의를 인도했으며 둘째 날 저녁에는 고현권 목사(베델한국교회)가 ‘교회사로 본 장로직의 본질 회복’, 최홍준 목사가 ‘제자훈련과 목양장로사역’을 그리고 셋째 날에는 최홍준 목사가 ‘존중집회’, 김명섭 목사(호산나교회 부목사)가 ‘목양장로사역의 실제’를 강의했다.

되는 것이 아니며 차세대를 향한 마음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의를 한 최홍준 목사는 “목양장로시스템은 교회본질을 찾아가는 시도이며 차세대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형식 등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쓰러져가는 교회를 예로 들면서 “한국과 이민교회가 부흥을 위해서는 시대마다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포장해서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목사와 장로가 해야 할 몫이다. 다음세대 책임지는 교회 그것이 목사장로 같은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다. 본질은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첫날 강의에서 홍민기 목사는 자신이 어린 시절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과 목회자가 돼 이민교회와 한국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목사와 장로의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홍 목사는 다음세대에 대해 설명하면서 “영어가 능통한 2세들이 신학교에 가는 비율이 현격히 줄어 들었다. 반면 교회에서는 차세대목회를 위해 EM목회자들을 찾고 있다. 그 결과 2세목회자들의 신앙상태와 영적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이 고용하려고 하다 보니 그들의 몸값이 올라가게 됐다. 그들의 버릇을 나쁘게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하며 차세대목회자는 영어를 잘해야

“타문화 이해 못하면 메시지 왜곡”

그레이스신학교 세미나 및 학교설명회

그레이스신학교(GTS, 총장 로널드 매너한 박사)는 5일 오전 9시 ‘교차문화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US Center for World Mission에서 본교 선교학 교수인 탐 스톨터 박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세미나를 열었다. 스톨터 교수는 “타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메시지가 왜곡된다. 정상적 이미지 내용 아이디어를 분석하는데 사전적으로 분석하면 일부만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타문화권을

에 강신권 목사를 선출했다. 이번 노회에서 세계성경장로교회 강신권 목사와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가 부총회장 후보선출을 위한 후보로 나선 가운데 투표를 통해 강신권 목사가 부총회장 후보로 선출됐다. 첫날 오전에 열린 개회예배는 노회장 이상훈 목사의 인도로 시작, 부노회장 김행용 장로가 기도, 미주장신대총창단이 특송을 했으며 이상



제2회 목회자자녀 장학기금 마련 성가합창제에서 연합성가대가 찬양하고 있다.

“내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제

제2회 목회자자녀 장학기금마련 성가합창제 성향

제2회 목회자자녀 장학기금마련 성가합창제가 9일 오후 7시 월서연합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내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시146:1)를 주제로 성향리에 개최됐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 단장인 박응태 목사의 인사말과 부단장 이상기 목사 기도, 전종재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성가합창제는 월서연합교회(지휘 박정선), 주님세운교회(지휘 서문옥), 대광OB코랄(지휘 김승업), 나성열린문교회 살롬권사찬양대(지휘 노혜숙), 오렌지힐교회(지휘 이종현), 글로리아합창단(지휘 권혁래), 감사한인교회(지휘 최운용), 조이플러교총창단(지휘 서문옥), 목사장로부부찬양단(지휘 전종재), 미주기독교목우회총창단(지휘 유의상) 등이 출연했으며 이화보컬앙상블 & 솔

리스트와 피아니스트 미아 셀튼이 찬조 출연해 음악의 향기로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성가합창제는 전종재 교수의 지휘, 헬렌박 씨의 반주로 이날 출연한 전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라 감사의 연합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를 청중들과 함께 부르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박응태 단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1회 합창제에서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로 목회자자녀 22명에게 각 500달러씩 총 11,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히며 “이번 합창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이민사회가 찬양을 통해 능력을 체험하며 새롭고 소생해 은혜와 감사기쁨이 넘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템을 이해해야 한다. 상대의 문화를 정확히 파악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타문화라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어떤 상황에서 성경적인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세미나를 마친 후 11시부터 JJ그랜드호텔로 자리를 옮겨 열린 GTS 설명회에서 탐 스톨터 박사는 GTS에 대해 설명했다. 1937년에 설립된 본교는 ATS 정회원이며 모든 프로그램은 기독교 사역을 위해 인격, 실력, 봉사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이취임식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5대 총장 김인수 박사 이취임식 및 6대 총장 이상명 박사 취임식을 18일(화) 오전 11시 나성영락교회에서 갖는다. ▲문의: (562)926-1023/4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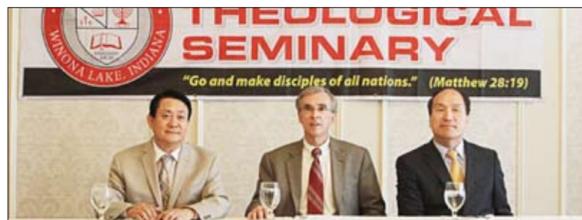
지역사회건강검진 및 후원음악회
매주 토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벨리한국장로교회(담임 김인철 목사)에서 무료건강검진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의료선교회가 오는 10월 7일(주)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지역사회건강검진을 위한 특별행사와 함께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세계의료선교회를 위한 후원음악회를 개최한다. ▲문의: (818)621-4245/ (213)239-3440

뉴비전교회 2012 워십투게더
뉴비전교회(담임 이진수 목사)는 2012 Worship Together 집회를 15일(토) 오후 7시 ‘One Voice! One Worship!’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문의: (408)719-0000

찬양선교 음악회
찬송가 보급과 찬양사역자, 찬양팀을 돕기 위한 찬양선교음악회가 10월 7일(주) 오후 6시 주사방선교회(담임 이재근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는 캘리포니아 마스터코랄, LA남성선교합창단, 소노러스싱어즈, 이화보컬앙상블, 예담피아노트리오, 바리톤 장상근 씨 등이 함께 한다. ▲문의: (562)714-0691

ANC온누리교회 LA목요찬양예배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가 LA 성도들을 위한 ‘LA 목요찬양예배’를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베델장로교회(담임 변영익 목사)에서 개최한다. LA목요찬양예배의 말씀은 유진소 목사가 전하게 되며 주차는 교회인근 Bank of America에 하면 된다. ▲문의: (213)215-8643/이종길 장로, (213)247-4833/김의구 목사

이단대책세미나
미주기독교 이단대책 연구회(대표 한선희 목사) 주최 이단대책 세미나가 16일(주) 오후 4시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개최되며 텍사스 달라스 지역 세미나는 25일(주) 오전 10시 서남침례교회(정태윤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13)484-2574



그레이스신학교 설명회와 세미나가 5일(수) 열렸다. 사진은 학교설명회에 참석한 허귀암 목사, 탐스톨터 그레이스 신학교 선교학 주임교수, 박시경 그레이스신학교 한국학부 프로그램 디렉터.

의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951년 그레이스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1,500여명이 재학 중이며 온라인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으로는 선교학박사, 목회학박사, 선교학석사, 그리고 선교학 석박사 통합과정 등이 있다. 특히 이중언어로 진행되는 선교학 박사과정은 미주 내에서 유일하게 GTS만이 ATS에 정회원으로서 가입돼 있다. 온라인의 석사 및 박사과정 강의는 1년 내내 진행되며 인터넷 코스는 봄, 여름, 가을학기 열리며 현재 인디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호주시드니, 미국LA, 프랑스 7개 지역에서 이뤄지고 현지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학생들은 25개국에서 왔으며 85%-90%가 선교사들이다. 선교학 박사과정은 4과목을 본교에서, 2과목은 인터넷으로 나머지 4과목 선택과목은 현지에서 들을 수 있으며 올 11월에는 한국에서도 강의가 열리게 된다. <박준호 기자>

매일 기도회와 매일 정기 기도성회가 있습니다

9월 미주 갈멜산기도원 정기 기도성회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 담임

일시 : 2012년 9월 20일(목) ~ 27일(목) (매일 오후 7:30, 오전 10:30) | 문의 : (818)306-4912

L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한국의 안양에 위치한 갈멜산금식기도원에서 2012년 3월 19일에 설립된 기도원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자 세워졌습니다. 로마어타운 내 카타리나와 W 8th 코너에 위치하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기도회와 매일 초성급 담임목사가 직접 성회를 인도하는 매일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교회중심과 말씀중심의 기도성회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복의 감격,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몇 년의 신앙이 쌓일수록 직분자들은 권고하고 성숙한 신앙을 지니게 되어 사역자들은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야기의 첫문장이 됩니다. 저급도 기도를 대신할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www.galmelsan.or.kr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Tel: (818) 306-4912

1982년에 시작된 갈멜산금식기도원은 365일 언제나 기도성회가 있으며 매주 목, 금, 토요일은 불야기도회가 있습니다. 현재 갈멜산 금식기도원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개교회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기도,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매주간 약 2만 5천여 명이 참석하여 온 마음을 경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과 기도에 부응하여 하나님에 맡겨주신 사역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그리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안양 www.galmelsan.or.kr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38-14
Tel: (031) 472-7212~6 Fax: (031) 472-7211

강화 www.galmelsan.or.kr
인천광역시 강화군 영동면 하일리 26-3번지
Tel: (032) 957-9724~6 Fax: (032) 937-9727

LA www.galmelsan.or.kr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Tel: (818) 306-4912

국내 선교 : 미자립교회 후원, 신학술 훈련지원, 경합선교, 호스피스 후원

국외 선교 : 교회개혁, 건축, 사역 지원

모스크바(영국전, 우즈베키스탄(김형석, 장필주), 브라질(강구희), 파라과이(전정섭, 박성진), 캄보디아(유재원, 니콜로(홍사순), 멕시코(우상배), 일본(김태태, 통광(김정원, 박승호), 태완(이성배, 김재구), 뉴질랜드(기호중), 호주(김주철), 베트남(이영석), 인도(최승원), Hop선교회, 대신제교회)

인도선교 : 교회 개혁과 현지 사역자 훈련, 사역 지원

교회 : 호수교회(델리), 규원교회(뭄바이), 이도교회(산토스) 상원교회(델리), 마드라스교회(세워), 크리스찬(카리)교회(델리)

인도기도원 : 타밀라루루 호수

선교사 지원과 보육

1989년부터 매년 상반기에 영국에서 파송된 각 교단과 선교단체에서 소속된 20명의 해외선교사님들의 가정에 선교위원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심신, 생활의 큰 영적 충전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쬐어지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혼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는 본거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용감히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초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피땀 흘려 사역(남사(동양교회))

이필재 목사(남보리교회)

송용길 목사(산천교회)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박주환 목사(베다니교회)

유연재 목사(성령교회)

예장 합동

오는 17-21일 대구 성명교회에서 열리는 예장 합동 97회 총회의 의미는 크다. 한국교회 5만 교회 중 1만1450여개가 예장 합동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교단의 문제는 한국교회에 파장을 미친다. 이번 총회의 주요 이슈는 총회 세계선교회(GMS) 정상화와 아이

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총회 독립기관인 GMS를 감사하고 총회 산하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의안이 상정돼 있다. 아이티 구호금 문제는 기금 전용과 관련된데 있다. 구호금이 중국과 필리핀 등 기타 구호활동에 쓰인 것과 총회 허락 없이 비전센터 설계비와 건축시공 선급금을 지출한 게 문제되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선거제도

2012 교단 총회 핫이슈

한다는 현의안도 올라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목회자 납세의 영항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회자납세연구위원회 설치 현의안이 상정됐다는 것이다. 또 '목회자 바로서야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영성 사회활동 등 세부 기준을

예장 통합

정책 현의안을 통해 본 예장통합총회(총회장 박위근 목사)의 올해 이슈는 '교회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단 내부적으로는 농어촌 선교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농어촌 교회에 포함될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점, 선교회와 함께 농어촌교회 살리기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 등이 주된 이유다. 서울관악 및 부산, 경북 노회 등에서는 한국 전역의 피크타임 요일에 따른 총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해 실제 반영이 될지 주목된다. 주요 내용은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 전기 소비량

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의안도 눈길을 끈다. 서울노회 등 2곳에서 제출된 이 현의안은 복수의 목사 및 장로부총회장 후보를 제비뽑아 총회에 추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노회총회 이철신(영락교회) 목사는 현의안 제안 설명에서 "금권 선거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조치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교회의 사회신도도 추락하고 교회 내부개혁에 대

'GMS, 총회 산하기관으로 전환 정상화 모색

티 구호금 전용 의혹, 선거제도 변경, 찬송가 문제, 헌법 전면 개정, 목회자 세금납부 연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문제, 탐라대 매입 건,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 등이다. GMS 문제는 선교사 안식년 기금이 미주연락사무소 구입에 사용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선교사 49명이 횡령 혐의로 자신을 파송한 이사회를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며 5명의 선교사를 징계했다. 예장 합동은 GMS 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

변경은 단골 이슈로 등장했다. 제비뽑기가 리더십을 느슨하게 만들었기에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직선제+제비뽑기' 제도가 심도 깊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법인인 한국찬송가공회 출시할 새찬송가 선택을 두고 찬반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총회실행위원회가 한기총 회장 후보를 선출·파송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총회실행위 결정은 원인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기총이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될 때까지 교단 분담금 납부를 중지해야

답은 '목회자 윤리강령'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100년간 유지해 온 교단 헌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0억대로 추산되는 제주 탐라대 매입 건은 이사회에 맡겨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남포당 문제와 옛 개척교단 소속 목회자의 학적취득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부총회장 후보로 정평수(성남만남교회)와 황원택(서울신장교회) 이태선(이정부승리교회) 안명환(수원명성교회) 목사가 출마했으며 제비뽑기로 선출한다.

농어촌 교회 살리기 · 반기독교 세력 대응에 초점

선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다. 교단 밖으로는 반기독교 세력에 대한 대응과 교회연합기구와 관계 설정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4일 통합총회에 따르면 서울동노회와 전북동노회 등 전국의 10개 노회가 현재 단일 부서로 운영되고 있는 군·농어촌 선교부를 군·선교부와 농어촌선교부로 나눠 달라고 청원했다. 2006년부터 총회 발전 개혁안에 따라 예산 절감 등을 위해 통폐합된 부서를 다시 분리시켜 달라는 요구다. 현재 통합교단에 소속된 교회 8162곳(2010년 말 기준) 중 36.6%인 2988곳이

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피크타임 요금제가 주일에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회 입장에서는 '요금 폭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노회 소속 부산영락교회의 경우 지난 1월 110여만원이었던 전기요금에 2월에는 피크타임 적용으로 191만원을 내야 했다. 무려 73.6%나 폭등한 것이다. 부산노회 관계자는 "한국 전역의 전기 절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요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총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부총회장 선거제도에 '제비뽑

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리는 현의'라고 말했다. 이밖에 교단 소속 목회자 1만 2000여명이 가입한 연금재단 비리 문제의 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큰 관심사다. 최근 2개월간 진행된 예장통합총회 연금재단 특별감사에서 재단 책임자 및 실무자의 횡령매입 의혹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의 관계 문제도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현재 예장통합은 한기총에서 갈라져 나온 한국교회연합(한교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새 찬송가 나오면 적극 사용할 것"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감 3개 교단 입장 밝혀

예장 통합 박위근 총회장과 예장 합동 이기창 총회장, 기감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새로운 찬송가를 제작해야 하며 찬송가가 출시되면 교단에서 적극 수용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인수로 봤을 때 한국교회 3분의2 가량을 차지하는 이들 3개 교단 대표의 새로운 찬송가 지지표명은 오는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로교 총회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대표회장 이기창 김용도 목사)는 10일 "최근 박위근 이기창 총회장과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모임을 갖고 새로운 찬송가 사용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3개 주요 교단장은 합의문에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불법이며 재단법인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원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기감의 21세기 찬송가는 법적·내용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기에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지난 7월 12개 교단장과 대표들의 합의를 재확인하며 새로운 찬송가가 발간될 경우 각 교단이 적극 수용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12개 교단장의 합의사항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관계자들의 회개·자숙, 법적 문제가 된 21세기 찬송가의 문제, 새로운 찬송가 개발 요청, 성도들의 부담경감 방안 강구 등

이다. 강승진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총무는 "새로운 찬송가 시제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시제품은 예장출판사와 대한 기독교서회를 통해 공급된다"면서 "520곡 중 70곡이 한국 창작곡이며, 부록으로 실린 한국 CCM까지 포함하면 140곡이 한국인의 찬송"이라고 설명했다. 예장출판사 관계자도 "새로운 찬송가 작곡·작사가들은 무상 사용을 허락한 상황"이라면서 "이르면 오는 19일 이전에 시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기독교서회 관계자는 "새로운 찬송가 사용여부를 결정짓는 분기점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인준여부를 결정할 예장 통합 총회와 새찬송가 사용여부를 논의할 예장 합동 총회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교계, 아동음란물 추방 운동 적극 나서

어린이재단 "아동 음란물 제작, 유통, 소장도 범죄"

[CBS]기독교교계가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나섰다. 아동 음란물 추방 운동에서 아동 성범죄 신고 교육까지 다양하다. 조두순 사건에 이은 나주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어린이재단이 아동 포르노가 발견됐다"며, "아동 음란물의 제작, 유통, 소장 행위 역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오는 9월말까지 인터넷 블로그와 SNS를 통해 진행되며, 현재까지 1만8천여 명이 아동 포르노 근절에 동참하겠다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르자 교계가 아동음란물을 뿌리뽑기 위한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명 '도가니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운동을 벌였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노치일드 포르노(No Child Porn)'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재단 이서영 팀장은 "아동 성범죄자의 집에서는 어김없이 아동 포르노가 발견됐다"며, "아동 음란물의 제작, 유통, 소장 행위 역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오는 9월말까지 인터넷 블로그와 SNS를 통해 진행되며, 현재까지 1만8천여 명이 아동 포르노 근절에 동참하겠다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고교육을 준비 중인 곳도 있다. 굿네이버스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오는 11월 19일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전후해 성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요령 등을 담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동대상 성범죄가 주변인물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자행된다는 점에서 굿네이버스의 성학대 예방책이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 열린문사회복지센터에서는 성범죄 예방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한 열린문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음악회에서는 사회에서 이탈된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기독교 편파보도 행태 좌시 않겠다"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감 3개 교단 입장 밝혀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의 문제점을 보도하지 않는 등 기독교에 대해 편파 보도와 종교차별적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일반 언론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종자연에 연구용역을 준 것에 대해 기독교계가 지난 5월부터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교계

의 입장을 보도한 일반 언론은 없었다"며 "지난달 30일 교계가 문체부 개최한 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에 관한 보도 역시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언론사들에 대해 "목사 개인의 잘못은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불교단체(종자연)의 기독교학 교·기독교인 공격행위는 보도하지 않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사회여

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포털사이트들이 기독교 관련 기사는 부정적인 소식 위주로 게재하고 불교 등 타종교에 대해서는 긍정적 기사를 주로 실는 행태도 꼬집었다. 대책위는 언론사별 종교 관련 보도 실태를 조사, 분석한 뒤 동영상과 자료집으로 만들어 전국 교회의 주일예배시간에 상영하거나 배포해 교인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미션스쿨에 "종교교육 지침 지켜라"

서울시교육청, 자사고까지 기준 요구하며 압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박노현)이 미션스쿨에 종교활동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종교교육 시 복수과목 개설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앙교육을 위해 법외인정입금과 등록금만으로 운영되는 자율형사립고까지 이런 기준을 요구하며 압박해 반발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가 5일 입수한 '종교관련 교육활동 지침준수 재강조'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종교

관련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종교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교육과정 편성·운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종교 관련 교육활동 세부 실시 현황을 제출하라"며 엑셀 파일로 '종교교육활동 편성·운영 현황 작성' 양식을 첨부했다. 미션스쿨은 이 문건에 따라 학년별 복수과목과 희망조사 방법, 희망조사 학생, 편성 과목명, 복수과목 미편성 사유 등을

제재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 없이 교육과정 운영과 편성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려보낸 것"이라며 "종교활동을 할 때는 종교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내 미션스쿨의 한 교목은 "복수과목을 요청하는 학생은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한 데다 재정이나 인력 면에서 복수과목 설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박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 이런 식으로 거듭 미션스쿨을 압박해 신앙교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게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저어가 영혼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르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 L.A., CA 90010

www.le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8 (올림픽 길서 건너)
Tel. 213.487.5446 Cell. 213.683.9101 Email. leguesthouse@live.com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736-6500 FAX. (213)735-6504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8-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책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hanmail.net
로스앤앤저서 워싱턴DC저서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를 넘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파라과이

감사한 일

1) 주님의 크신 은혜로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대학의 2층 3층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은혜로 공사가 중단되지 아니함으로.
 2) 기독교 예술학교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여 교장과 교사와 학생들이 큰 은혜 속에서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3) 손녀 하원이 여러분의 기도로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 앞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기검사도 잘 받을 수 있을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역모습 소개



1)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 대학 한 학기를 잘 마치고 2학기개강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번엔 몇 명이 빠질까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학원인가를 받은 결과로 한명도 나오자 없이 한명 더 추가로 학생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60여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4개 교회에서 장학금을 32명(1인당 70달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서 신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이유도 되지만 학비에 신경 쓰지 않고 더욱 공부를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여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키우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입니다. 남은 30여명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숙사를 지어서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2층(약 16만달러)을 신축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었는데 7월에 기공식을 하였고 지금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16만달러 공사를 2만달러를 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매월 2만 달러씩 지불해야 하는데 어찌 2차로 지불하였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2) 산촌 아멘교회 옆 산촌학교에 화장실 지어주기
 2010년에 교실하나 지어 준데 이어서 올해는 화장실을 지어주었습니다. 파라과이에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참



말씀입니다. 몇 달 전에는 산촌 학교 교실 전체를 페인트칠을 해주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해오던 아멘교회 버스도 안 들어가는 산골 동네에 학생은 120명 교실은 2개였는데 작년에 나라에서 하나 짓고 내 선교사역으로 한 칸 지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멘교회 동네의 학교 화장실을 하나 수리하는데 1일 찾집을 하여 1/3 500만GS를 벌었습니다. 기특하여 2/3는 제가 지불하여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수리하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가 무서워 자기 집으로 달려가던 어린이들이 그곳에 너무 아름답게 지어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더 흐뭇하였습니다.

3) 시카고 한인세례성교대회 및 세계 한인선교사대회에 참석하여 강의 및 간증으로 봉사와 선교한국2012에 참석하여 강의 간증 멘토 조원으로 봉사했습니다. 중남미의 신앙이 가톨릭 묵속 신앙임을 밝혀주고 5000여명 모인 무리에게 교육선교의 절실성을 간증하였고 4000여명이 모인 선교한국 청년 대학생들에게 참 신앙 참 믿음 참 선교에 대하여 강의와 간증과 상담으로 같은 조원으로 돌보며 사랑하며 위로하고 선교의 꽃을 피우도록 리드하였습니다.

4) 선교남미 2013...모두 오세요!!!



제7차 선교남미 2013을 보물의 나라 브라질서 "선교의 주역 디아스포라" 주제로 2013년 1월 21일(월)~24일(목)까지 실시합니다. 선교남미란 선교동원 및 선교인재 발굴 프로그램으로서, 1999년 2년마다 진행되며 중남미에 산재해 있는 디아스포라 1.5세와 2세들에게는 바른 선교 방향을, 디아스포라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장 및 선교 관심자들에게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GP(Global Partners)선교회는 한국에서 1968년에 시작된 국제선교단체로서 32개국에 3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순수한 재생 선교단체이며 한국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남미를 섬기기 위해 1992년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부터 디아스포라 교회와 1.5세들을 섬기기 시작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와 칠레에



선교지 편지

서 "선교남미"를 진행하면서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 선교 동역자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남미 복음화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5)가족동향 한국으로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것 얼마만인가요? 시카고 대회 선교한국 GP모임 이랜드 회사에 배인도 설교 등등 집사람은 치료차 한국으로, 큰딸 현이는 손녀 암 치료차 한국에 가족이 체류하고, 막내 다운이는 MK수련회로 남편이 회장으로 목원대학에서 수련회 차 입국하고, 아들 철이는 사업 업무차 잠깐 한국으로, 그리하여 모처럼 한국에 다 모였습니다.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막내 사위 생일 며느리 생일 손녀 하원이 앞에서 완전 치료 기념 등등 74년 아내 이복래와 결혼하여 이제 열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것 밖에 없습니다. 나의 목회와 선교사 44년의 광야 길이었기에 좋은 기념 사진이기도 하니 더욱 기쁘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기도제목

1. 10차 목회대학원 훈련을 받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올해 한해도 사도행전적 교회로 잘 성장시키는 영력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2. 2012 신학대학 2층 공사비 16만달러, 집기(4만달러) 구입에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잘 마치도록(선교부에서 파라과이 신학대학도 기도제목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독교 예술학교 5개 교회 협력 신학교 후임자가 속히 와서 일하시도록. 베들레헤교회에 사역자가 지난 8월 첫 주부터 박종민 허미례 선교사님이 오셔서 직임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2년반 동안 사역하시고 안식년 잘 하실 수 있도록.
4. 앞으로 4년간 GP선교부 부대표(5권역 AD)로 선임되어 10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년차 총회에 참석하는데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하신 나라 남미 파라과이에서 여러분의 선교사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
 E-mail: admin@gpusa.org

헝가리

안녕하십니까? "선교의, 소박파(Navie Art)"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드리며~

끝없는 비난과 조롱 뒤에 그에게 붙은 이름, '소박파(Navie Art)' 저희 부부는 '소박파 선교사' 이고 싶습니다. 만약 선교사에게 파(흐름, 경향, 특성)가 있다면... 정글에 소파를 띄우지 않겠음, 한마디로 어이없는 순진한 화가 앙리 루소처럼. 우리 동네 관공서를 갔다가 기다리는 사이, 주변을 산책하다 발견한 헝! 세 개의 감옥... 그리고 루틴을 벗어나 지름길로 운전하다 발견한 두 개의 집시 슬럼가! 저희는 부다페스트 10구역의 이웃인 감옥과 슬럼가 정글에 안락한 소파를 놓기로 했습니다. 그 소파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여러분은 정글 같은 세상과 인생에, 한 몸을 누일 소파가 있습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헝가리 단기선교로 온 팀 중에 한 젊은이가 마지막 날 고백합니다. "그때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미치고 죽을 것 같다고 페이스북에 썼는데, 선교사님이 헝가리에 한번 오라고 하셨습니다. 마로 저예요." "응? 너야? 너였어?" 그것도 모르고 그 청년은 우리 둘째 아들 과 나이나와 전공(신학)이 같아서 더 사랑스러웠는데...

그 팀이 떠나기 전에 인솔해 오신 목사님을 불러 그 청년에게 봉투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신학생이니까 조금이지만 후원하고 싶어요. 안 받을 것 같으니 대신 전해주세요." "선교사님! 그 청년의 아버지가 사업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힘들었어요." "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감옥에 데려가서 기도를 심고 왔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아버지를 떠올리며... 위로도 됐을까? 우리가 심은 기도에도... "애매히 강한 자를 위로해주시고 속히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했던. 한국 외교통상부가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의 고문 사건을 계기로 조사를 했습니다. 35개국에 수감된 우리 국민은 1,600여 명. 그 중에 중국 내 수감된 한국인은 625명. 저희

가 부다페스트의 교도소 사역을 엘몰나르 이 슈트만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눈여겨보았습니다. 혹 여기 한국인이 있을까? 비록 천 명 정도 되는 작은 한인커뮤니티이지만. 물어보니 없더군요. 거기에는 아시아인이 대 여섯 명 띄었는데 마약사범이라고 하네요. 또 아름다운 다뉴브 강이 흐르는 고색 찬란한 부다페스트에 이런 집시 슬럼가가 내 이웃에 있다니! 마치 인도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Slumdog Millionaire)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금방 무너져버릴 것 같은 폐허, 먼지 폴폴나는 쓰레기더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를 속에 300 가구 1,100명의 거주민, 80%는 어린이들과 심대 미혼모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그렇게 꿈꾸던 어린이 사역을 위해 단기선교팀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첫날 두 명이 물벼락 맞았을 때 선교사다 받는 수도로 감사했지요. 다음날은 입에 해바라기 씨를 까먹은 뒤 껍질을 우리에게 툭 툭 던지고, 더구나 열두세 살 된 꼬마가 온갖 성적인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능글거리며 해대니, 또 주일예배 때는 어디선가 돌이 날아오고 저도 빈 가스통을 머리에 맞았네요.

"바이다(Vajda, 집시들의 족장)가 죽어서 더 그래. 바이다가 없으니까..." 아하! 이곳엔 바이다 소파가 필요하네요. 족장 되신 우리 주님, 여기 임하소서! 단기선교팀도 돌아가고 이제 저희 "거리의 교회" 섬김이들과 함께 즐거운 헌신합니다. 수퍼마켓을 하는 중국인 친구 Mr.홍과 소빈도 급식사역을 위한 재료를 헌물합니다. 헝가리 어린이 사역자 아구

스틴 목사님도 바이올린을 들고 오십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헝가리 목사님들과 슬럼가의 빈 집을 예배당으로 쓰기 위한 회의를 갖습니다. "잡자는 집시여인"이란 앙리 루소의 작품이 뉴욕현대미술관(MOMA)에 걸려있다고 합니다. 파리 화단의 세련미와 기법, 제도, 주류, 리듬에 연연해하지 않는 원시적인 그림이. 그런 화풍의 룩이 없어서 그냥 볼려했던 소박파(Navie Art)! 묵묵히 정글에 소파 놓는 그런 선교사, 목사, 크리스찬이 되면 좀 안될까요? 감옥의 죄수든 슬럼가의 집시든 길바닥의 노숙자든 사람이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소박파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소박파(Navie Art)! 감사드리며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선교사 김흥근&서명희 드림. 홈페이지:http://hungary.cafe24.com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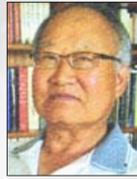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기독교문학소설

여리고로 가는 길 (2)



정중해 박사 (문학인)

진태는 병원복도에서 간호사를 만나 물어보았다. "현수 엄마가 언제 왔지요?" "점심시간에 다녀가셨습니다."

간호사는 진태의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렸는지 주춤하고 잠깐 진태를 의아스럽게 쳐다보더니 소상하게 이야기했다.

"엄마는 현수를 보자 부둥켜안고 울었어요. 현수도 좋아서 엄마를 껴안고 큰소리로 울더군요. 모자가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렇게 포옹하면서 울지요? 나는 그들 모자가 반가워서 우는지, 슬퍼서 우는지 영문을 몰라 그저 어리둥절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현수 옆에 있다 갔나요?" "병원 짐실을 먹고 있는 도중에 왔는데, 엄마가 먹을 것을 또 잔뜩 가져왔어요. 아들이 점심을 다 먹어치울 때까지 식탁 옆에 바삭 붙어 앉아 가져온 음식을 일일이 다 챙겨 먹더군요. 다 큰 아들을 마치 아기처럼요. 모자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엄마는 나더러 자기 딸 아기가 곧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라면서 자리를 뒀습니다."

진태가 예상한 대로 현수는 자기 엄마의 문병을 받은 후 정신상태가 급속히 호전되어 이를 뒤에 감금되어 있던 정신병동에서 풀려나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진태는 현수가 앓고 있는 정신병에 관한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제일 잘 알았다. 이혼 후 엄마가 데리고 간 딸은 아무 일이 없는데, 아버지가 돌보는 아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때부터 기가 죽어 밖에 나가 놀지도 않고 마냥 집안에서만 서성거렸다.

진태가 이혼을 하고 또 하나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은, 성인 자식들은 몰라도 어린 자녀들은 부정보다도 피부를 맞대고 가슴에 품고 길러준 모정에 더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동안 엄마와 떨어져 마음이 깨져 있다가 그토록 아쉬워하던 엄마가 병원에 찾아와 얼싸안아주니까 아들의 가슴앓이가 잠정적이나마 치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진태는 알았다.

현수는 아버지 슬하에서 자라면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불만, 즉 어머니의 사랑에 굶주려 있었다. 그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거동이 늘 무기력하고 얼굴에는 언제나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

진태는 현수의 우울증을 처음 목격했을 때는 아이의 선천적 성격의 결함으로만 알고, 그의 우울증 치유를 전적으로 약물에만 의존하려 했다. 진태는 이제야 아들의 정신적 상처는 화학반응에만 의존하는 약물치료만으로는 근본적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수에게 부모가 갈라지기 이전의 그런 평화로운 가정환경을 되돌려 주지 못하면 아들의 건강회복은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진태는 이혼한 아내와 재결합한다는 것은 이미 강 건너간 문제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한탄

할들 무슨 소용이라!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민생활을 거두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전당포나 은행에 잡혀 있는 저당물은 돈을 지불하면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벌써 다른 남자의 품에 넘어간 아내를 무엇을 주고 다시 찾아올까? 땅가진 내 인생을 제발 좀 물려달라고 호소하고 싶지만, 도대체 누구에게 가서 그런 호소를 할까? 진태의 심정은 그저 착잡하고 답답할 뿐이었다.

현수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날 밤이었다. 아들은 일찍잠자 침실에 전깃불을 끄고 벌써 잠이 든 모양이었다. 진태는 간신히 소상상태를 되찾은 아들이 또 우울증에 시달리면 어떡할까 염려가 되어 자정이 넘도록 잠이 오질 않았다.

진태는 침대 위에서 잠을 이루려고 이리저리 몸을 뒤척거리려 보았으나, 아버지가 자식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죄책감이 더 날카로워질 뿐이었다. 거 버린 전등불을 다시 켜고 현수의 질원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 며칠 전에 구입한 우울증에 관한 책을 다시 읽으려고 책장을 펴 보았다. 그러나 책장의 한 줄을 읽기도 전에 자꾸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각나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책을 접어 등잔 밑에 놓고 진태는 멀거니 뜬눈으로 멍뚱뚱 통정을 쳐다보았다.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다. 언제나 자기 일신보다도 아들의 건강을 더 염려하고 아들에게 무엇을 먹이지 못해 늘 안절부절못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고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탄식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진태 어머니는 팔자 사남계도 평생을 과부로 살았다. 그러니까 외동아들이던 진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다. 진태가 나이 들어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는 젊을 때 어느 돈깨나 있는 남자와 사귀던 적이 있었는데, 남자의 끈덕진 구애에 못이겨 결혼하기도 전에 그만 임신을 하고 말았다. 다급하게 된 어머니가 남자에게 결혼을 서둘라고 다그치니까, 그때야 남자는 이미 아내가 있는 몸이라고 고백을 하고는 그만 자취를 감춰 버렸다.

어머니는 처녀로서 불의에 임신한 아기 진태를 해산하고 처음에는 자기 부모님이 미리 계획해 놓은 대로 어느 어숙 가정에 입양을 시키려 했으나 벌써 태어난 자식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 앞으로 아이 때문에 결혼길이 막히더라도 살길이 어려워 아이를 데리고 문전걸식을 나서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기르겠다고 결심을 했다.

진태의 머리 속에는 아직도 어릴 적 기억이 초롱초롱했다. 자기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가 어느 남자와 결혼도 하지 않고 한집에서 같이 살다가 몇 년 후에는 그와도 그만 헤어지고 말았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독신으로 살았다.

(다음호에 계속)

선교지 편지

짜오통 묘족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10:8)

어제 26일 주일 여름단기사기 여행보고를 가졌습니다. 2012년 단기사기 방향은 단기의 2번째 단계인 아웃리치로서 소수민족의 필요와 연관한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단기사기 1단계, 비전트립은 주님이 기쁘게 주시는 사기비전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년에도 기쁘게 3주년을 맞이하여, 쿤밍의 소수민족 기쁨과 미전도종족(은남 북서쪽) 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방문했던 미전도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그곳의 현지사역자가 현재 가족사업(양계장)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 사역이 미비하여 내년으로 미루고, 운남성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짜오통'(昭通)-(위 지도)에 있는 묘족 기쁨을 돕는 것으로 결정하고, 총 8명의 인원이 10주간의 pre-field 훈련과정을 갖고 지난 2주간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쿤밍까지 기차로 25시간, 쿤밍에서 버스로 8시간, 붕고차로 2시간을 달려 한 묘족 기쁨에 도착한 시간이 밤 12시인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희 팀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묘족의 노래로 마을 입구부터 기쁨까지 환영하였는데,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묘족 기쁨마을은 대부분 옥수수, 감자, 담배잎 농사로 생계유지를 하며,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상 진학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 도시로 나가 농동을 해야 겨우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 묘족 기쁨은 14년 전에 미화 50달러를 들여 건축했습니다. 소수민족 기쁨의 상황은 정부의 간섭을 받아 답답이 없습니다. 장로들과 전도사가 돌아가며 말씀을 전하고, 관리 및 치리하고, 집사가 종교교육과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행정부분에 있어 질서가 없고, 의견충돌시 해결이 매우 어렵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목회자의 능력이 부족하며, 또한 성도들이 문맹이거나 교육이 짧아(대부분 국졸)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기쁨들의 영적인 성장은 이곳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도시를 밟게 된 동기는 신체적인 질병을 고침 받은 후 밟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쁨의 장로와 전도사들이 신망하여 기쁘다고 합니다.

사기사업

이 기쁨에서 저희 팀은 3가지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기쁨의 동역자들과 교제입니다. 저희 팀이 이 지역의 소수민족 기쁨을 첫 번째로 방문한 외부 팀으로서, 저희 팀 방문 소식을 들은 묘족형제 자매들이 한쪽 형제자매들이 드디어 방문한다고 했

다고 합니다. 소문이 퍼져서 저희팀을 만나고 싶어하는 소수민족 형제자매들이 기쁨을 방문하여 믿음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교제를 통하여 소수민족 기쁨의 필요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뿐 아니라 산간 지역에 있는 많은 소수민족 기쁨들이 아무런 도움없이 방법을 몰라 기행행과 리더십 양육에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한쪽 기쁨이나 해외의 화교 기쁨들이 연약하고 빈약한 소수민족 기쁨을 돕고 세우는 비전을 가지기를 소망하였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는 해외화교 기쁨에게 이런 필요를 알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화교 기쁨이 동원되기를 기쁘게 합니다.

둘째, 가정 방문사역입니다. 저희 팀이 3그룹으로 나누어 몇몇 가정들을 방문하고 위로하였습니다. 방문사역을 통하여 기쁨을 세우는데 많은 헌신을 한 분의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부모의 질병과 아이들 학비로 부득이하게 사역을 내려놓고, 마침 저희가 있는 도시로 공장장 노동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도시의 인도하심인지 공장장의 일이 무척 고되어서, 한 한국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광동성 광주의 아주 큰 한국식당으로 연결해주었습니다. 많은 소수민족사역자들의 신앙이 가정의 경제적 필요로 인하여 사역을 내려놓고 도시로 일을 하러 나가야만 하는 모습을 볼 때 한쪽 기쁨이 이런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키워주는 비전을 갖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셋째,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글 없는 책'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풍성한 게임과 말씀, 찬양, 율동 및 만들기 등을 준비했습니다. 팀원들 즉 선생님들이 묘족 아이들은 도시에 있는 한쪽 아이들과는 달리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아주고 또한 기쁨을 경외하고 예배의 자세나 배우려는 자세가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기후 후원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번 여행 때는 작년여행과는 달리 기쁨과 성도들이 사기에 대한 인식이 생겼는지, 헌금을 하였습니다. 소수민족 기쁨의 사역자들을 위한 목양에 관한 책들과 찬송가, 약품, 헌옷 운송비 그리고 기행헌금 등에 총 미화 약 1200달러가 모여 헌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상외로 많은 축복을 하여주셨는데, 이번 여행에 주재 '거저 주라'처럼 그렇게 축복해주셨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인해 소수민족 기쁨에게 큰 기쁨과 격려를 가져다 줄 수 있어 기쁘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동역하고 있는 이곳 기쁨에 온지 2년이 되었는데, 미국에서 가졌던 비전, 중국 현지 기쁨을 사기 동원하고 싶다는 비전을 기쁨에게서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의 정량 부족한 리더십에도 부족하고, 이번 여행에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사기여행을 위해 기쁘게주시고, 여행보고를 마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동아시아 C국에서 드립니다.

(3면에서 계속)

유대교와 이슬람이 연합?

지난주(9일) 독일 베를린 베벨플레츠 광장에서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이슬람, 독일 정부가 종교적 의식 절차인 할레를 금지하므로 이를 상대로 300여명의 유대교와 이슬람이 함께 'freedom of religion'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들은 이런 약박이 하나같이 독일이 다시 시민시대의 힘을 일으키려 한다면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에는 현재 120만 명의 유대인과 400만 명의 이슬람 신도들이 살고 있다. (이슬람 네트워크)



Table with 4 columns and 4 rows of church announcements. Each cell contains church name, pastor name, and service times. Churches listed include: 강남중앙감리교회, 군포제일교회, 금란교회, 김포제일교회, 광주신일장로교회, 동경중앙교회, 든든한교회, 로마한인교회, 명성교회, 삼보교회, 새예언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영로교회, 수정교회, 승평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촌교회, 안암제일교회, 앙곡교회, 왕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장대교회, 정주주의교회, 충신교회.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18)



3. 예배중심의 교육 (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지금 우리는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닌 성격들 중, '예배중심의 교육'(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들에서 예배중심의 교육은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한인들을 성심으로 섬기는 과정에서 체득적으로 실행해온 것이며, 동시에 보다 통전적인 기독교 교육을 일으키기 위해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그 첫 번째 주제로 '예배의 교육적 역할들'(Christian Educational Roles of Worship) 세 가지들—"도전을 주는 교화 (Edification)," "신앙과 기독교적 성품의 형성 (Faith and Character Formation),"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양육(Nurture for Spiritual Growth)"—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부터는 한인 교회의 예배중심 교육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한 그 두 번째 주제, 상기한 예배의 교육적 역할들을 수행하는 "방법들"(Methods or Pathways of Christian Education in Worship)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주된 기독교 교육 방법들은—예배의 교육적 역할들을 살펴보는 와중에 이미 간간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크게 설교(Predaching), 기도(Prayer), 예배 음악(Music), 그리고 성례(Sacrament)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전혀 새로운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가 예

측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비교적 우회적인 활동들이라면, 설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는 가장 극명하게 "교육적"인 까닭입니다. 즉 설교는 다른 것들과 달리 기본적으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 활동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Teaching) 일이 그 근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들을 통해 말씀 안에 선포된 복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배우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언약, 정의, 사랑, 그리고 회복하심을 배웁니다. 또한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성령의 사역과 교회의 의미,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해 배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교를 통한 예배자들의 배움은 단순히 성경의 내용들을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적인 배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한 가르침은 지식적인 부분 훨씬 그 이상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한 가르침은 성경 말씀의 내용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석되어서 그 말씀의 내용들이 성도들의 가슴에 심기우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이 되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설교를 통한 교육의 핵심은 말씀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익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본질적 활동 설교 통해 삶의 적용과 해답 이끌어낼 설교자 역할 커

배 안에서 매년 행하고 참여해온 매우 친숙한 예배의식의 활동들(Ritual or Liturgical Practices)입니다. 다만 오늘날부터의 이야기들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이들을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의식적 활동들이 아니라 "교육의 방법들"이며, 이들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의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있는 교육의 방법들로서의 설교(Predaching), 기도(Prayer), 예배 음악(Music), 그리고 성례(Sacrament),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드러난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 현실화 되어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이러한 확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떠한 과위를 가지는지 고민하게 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의 신앙과 삶이 형성되고 성장하도록 추동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삶이 힘겨울 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고 돌아보게 함으로서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자양분을 얻도록 합니다.

이들 중에서 오늘은 먼저 설교(Predaching)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전 예배의 과정을 통틀어서 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생각되어온 설교는 사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교육 방법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이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까닭입니다.

고 이해하는 것에 더하여, 그 익혔고 이해한 바가 "나에게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이끌고, 이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도록 추동하고 휘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앙이 성숙하고 영성이 자라나고 삶이 변화 받을 수 있도록 말합니다.

사실 설교를 통한 교육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지러운 여러 삶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되고, 다양한 삶의 경험들에 대한 의미가 되고, 많고 많은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예배자들을 현대를 용기 있게 살아내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통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설교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야말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일을 수행하는 주된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물론 포괄적으로 볼 때 설교를 듣고 반응하며 동요와, 새로운 깨달음과, 변화와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자들 또한 중요한 주체라 할 수 있겠지요).

이에 설교를 통한 교육에 있어서의 설교자의 역할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나 설교자 당사자들인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번 이야기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잠언의 목적 (잠1:1-7) 찬82장

잠언은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잠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이유는 잠언 기록목적은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혜를 주려고 기록했습니다(2). 여기나온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인간에게서 나온 격언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되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진리 지식은 생활의 지혜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딤후3:16) 둘째, 공의를 가르

치기 위함입니다(3). 잠언은 모든 생활에 기준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인간의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기준 곧 영적 선의 기준을 따라 움직이는 교훈입니다. 의로 원받은 자는 의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의의 표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셋째, 근신을 배우기 위함입니다(4).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사람이 먼저 근신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딤후1:3). 잠언을 통해 천국 백성의 생활표준을 바로 알아 순종합니다.

화 지혜자의 두 방향 (잠1:8-19) 찬379장

본문은 지혜자가 나아가야 할 두 방향을 보여줍니다. 첫째,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라고 합니다. 8-9절에 "훈계를 들으며 법을 떠나지 말고" 하십니다. 여기 나온 "아비와 어미"는 경건한 부모 곧,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먹고(마4:4) 묵상할 때(시1:2)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스라처럼 성령을 깨달음으로 은혜 받은 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악인의 꾀를 경계하라고 권합니다(10-19). 10절에 "쫓지 말아야 할 네 가지 일 곧, 사람의 꾀 흘리는 꾀(주사비), 통째로 삼키려는 꾀(탐욕주의), 전대 하나만 두자는 악을 도모하는 연합(연합주의), 그리고 은밀한 악한 계계(은밀한 죄)(16)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신자는 이 죄들을 철저히 경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수 지혜의 탄식 (잠1:20-33) 찬102장

본문은 지혜의 애타는 호소를 듣고 즉각 응답하라고 권합니다.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외침에 응답하는 삶입니까? 첫째, 지혜의 간절한 호소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20-27에 나온 길거리, 광장, 환화하는 길거리, 성문어귀 그리고 성중에서 "지혜의 신을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해 부르짖습니다(23). 더욱이 종말론적 경고를 보이면서까지 호소합니다(26).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성을 말합니다. 둘째, 지혜가 부를 때 즉시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24-27절에 대답이 없을 때

두려움과 재앙이 광풍과 폭풍처럼 몰려온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부름을 경멸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요14:6). 셋째, 지혜가 주는 영원한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에 응답하는 삶은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고 즉시 응답할 뿐 아니라 지혜가 주는 평안을 구하는 삶입니다(31, 33). 참 평안이 없는 우리 시대에 지혜의 탄식에 응답해야 합니다. 지혜가 주는 평안을 구합니다.

목 말씀과 기도의 삶 (잠2:1-9) 찬456장

본문은 이 지혜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세상일도 심혈을 기울여야 무엇을 이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더 큰 노력을 요구합니다. 받으며, 간직하며, 기우리며, 마음을 거기에 두라고 하셨습니다(1-2).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대접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결국 그 지혜는 그리스도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의 수고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여 찾으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수고(은사)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신앙의 불로소득을 경계하고 기도의 땀을 흘림으로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진실한 수고를 드릴 때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공의, 정의, 공평을 알게 됩니다(6-9).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표입니다(요17:3). 이것을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드려야 합니다.

금 지혜가 주는 유익 (잠2:10-22) 찬98장

여호와 경외의 지혜를 얻을 때 찾아오는 유익은 무엇인가? 첫째, 영혼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10절에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네 마음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고 한대로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주로 인정돼 모든 일을 평정하는 뜻이 포함되었습니다. 둘째, 악인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11-15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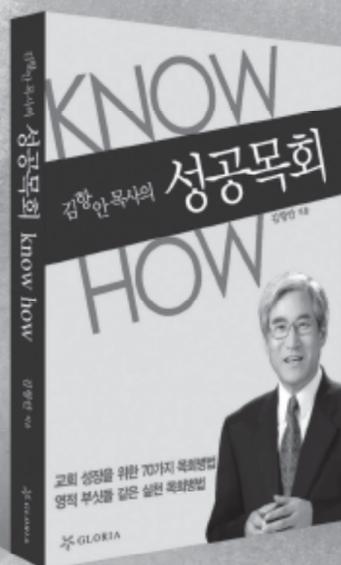
는 악인의 패역에서의 구원을 16-19절에는 음녀의 유혹에서의 구원을 말해줍니다. 자극적인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셋째, 의의 길로 계속 가게 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신자에게 물려오는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은 지혜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써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절대보호는 물론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토 복의 원리 (잠3:1-6) 찬 28장

잠언은 장수, 평강, 명예 그리고 인도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첫째,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1-2).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과 명령의 형태로 된 것은 우리가 지키기에 간편하고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자와 진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명예를 얻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사랑과 참으로 서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그

대로 품고 사랑하고 따르면 그의 삶에는 이런 사랑을 맞고 진실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셋째, 여호와를 의지하고 법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아는 항해가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와 인도를 받을 때 통통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와 말씀을 의지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 약속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김항안 목사가 전하는 실천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공 목회가 되게 하는 70가지 목회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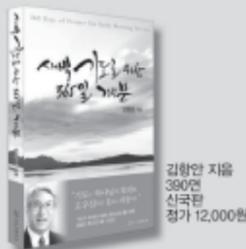
28년 동안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를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된 영적 부실들과 같은 실천목회의 Know How와 Know Where가 담긴 목회방법!!!

김항안 목사가 시편 150편을 새롭게 조명한 기독교 영성 안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출판부문 우수도서 선정



시편 150편에 담긴 기독교영성의 맥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대비시켜 영성의 맥을 알게 해 주는 영성회복의 내비게이션!!!

김항안 목사가 새한국중앙교회에서 행한
일 년 365일 새벽기도 대표기도문



기도는 자기의 무능을 한풀이하는 "성도대회"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옷 입는 과정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



김항안 목사
철학박사, 선교학박사

목포 교육대학, 가톨릭대학, 중앙대학교 대학원 장로신학대학원, 미국 브리검이 신학대학원, 연세대학, 배움신학대학원에서 수학했다. 강남 대학, 중회 신학, 서울 신학대 동대학원 강사, 아세아 신학대학원 교수,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글로리아 선교의 대표, 새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기독교 윤리의 원천', '절기 예배의 이론과 실제', '갑동적인 고난주간을 위하여',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성찰', '목회자의 영적능력회복 목회성찰', '목회자의 영적은사와 교회성찰', '대표기도문', '감사하는 영혼의 양식 헌구기도', '일만 번 주기도 하라', '아이들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크리스천 사방교육법', '말씀', '1807-2012 복음적인 예배의 성령을 위하여', '대박기도를 위한 365일 기도문, 위 다수의 저서가 있다.

피종진 목사 초청 2012년도 국내·외 성회 일정



· 단국대학교 문리대학 사학과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목회대학원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 미국 Philadelphia Faith대학원(D, Min)
· 미국 Henderson대학(Th, D)
· 한양대학교 운영이사장 및 목원원 원장
· 이세이연합신학대학교 CRC 교수
· (사)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총재
·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미국 JSTV위성방송국 이사장

HP : 010-5255-7777

1월

1(주)일 새벽	오산리화자살기념식기도원행장 김성길 목사	☎031947-0091
1(주)-3(화)	부산 천성교회(이항원 목사)	☎02684-3981
1(주)일 오후	인천 송도성령교회(조강원 목사)	☎032834-8291
3(화) 오후	인양 갈매신학교(김성길 목사)	☎031472-7213
4(수) 오전	서울 공성교회(장재현 목사)	☎010-5615-7073
4(수) 저녁	울진 성심수양원(김영준 목사)	☎031322-9196
5(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교회(이종진 목사)	☎041852-2211
6(금) 오전	서울 능곡교회(김영준 목사)	☎02937-5471
6(금) 오후	인천 주안교회(김영준 목사)	☎032681-9885
6(금) 저녁	서울 목동문리대학(홍옥희 목사)	☎010-8030-0636
9(월)-11(수)	서울 강남성수기도원(원영준 목사)	☎022683-4202
10(화) 오전	21C(홍성교회)복음화복합구 목사, 대표회장 유근민 목사	☎023463-6925
10(화) 오후	서울 사림교회(김영준 목사)	☎010-3224-2345
12(목)-14(토)	서울 시온성령교회(김영준 목사)	☎02843-8885
13(금) 오전	서울 대명교회(김영준 목사)	☎022690-5515
14(토) 오전	남서울중앙교회(이종진 목사) 제직사모나	☎029411-9191
15(주)-18(수)	인천 일무교회(김영준 목사)	☎031923-8947
17(화) 오후	한국기독교서적출판협회(대표회장 윤재목 목사)	☎010-2292-1006
19(목) 오전	한양신학대학교(김영준 목사) 실천목회연구원	☎022067-4511
20(금) 오전	월드비전(한국)복음화협의회(최영호 목사)	☎010-9195-0582
23(월)-25(수)	서울 성수성령교회(김영준 목사)	☎043833-3990
25(목) 오전	부산 성령교회(김영준 목사)	☎031745-0336
25(목)-28(토)	구이 선신성교회(이성순 목사)	☎054481-1941
29(주)-2(1)수	군포 성서교회(김영준 목사)	☎031391-8066

2월

2(목) 오후	국제총신교회(김영준 목사)	☎031968-9191
2(목) 저녁	광주 성서교회(김영준 목사)	☎031794-4409
3(금)-5(주)일	부산 천안교회(김영준 목사)	☎032611-8574
6(월) 오전	사신 임마누엘수양원(김영준 목사) 대표회장 김성길 목사	☎041664-7720
7(화)-10(금)	미국(U.S.A) 남가주 목회연합회(대표회장 김영준 목사)	☎714392-9576
10(금)-12(주)일	미국(U.S.A) 텍사스주(대표회장 김성길 목사)	☎956451-7768
16(목) 오전	한양신학대학교(김영준 목사)	☎022067-4500
16(목) 오후	주최: 오산성서연구원(김영준 목사)	☎031611-3397
16(목)-17(금)	인천 예수성령교회(김영준 목사)	☎010-3042-3435
19(주)-22(수)	서울 성서성령교회(김영준 목사)	☎02424-8181
19(주)일 오후	김포 천안교회(김영준 목사)	☎010-5685-1691
20(월) 오전	한국영성신학교(이종진 목사) 김태원 목사	☎02848-4445
21(화) 오전	주최: 세계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박종철 목사)	☎010-3443-1541
22(수) 오전	인양 갈매신학교(김영준 목사)	☎031472-7213
24(금) 오전	한양신학대학교(김영준 목사) 실천목회연구원	☎022067-4511
25(토) 오후	국제총신교회(김영준 목사) 이사장 박영순 목사	☎031968-9191
26(주)일 오후	서울 한성교회(김영준 목사)	☎011-347-3390
26(주)일 저녁	김해 주안교회(김영준 목사)	☎055336-2744
27(월)-29(수)	구이 선신성교회(이성순 목사)	☎054442-1793

3월

1(목) 오후	살림교회(김영준 목사)	☎010-3827-0691
2(금) 오후	한양신학대학교(김영준 목사) 실천목회연구원	☎022067-4511
3(토) 오후	서울 사림교회(김영준 목사)	☎010-3224-2345
4(주)일 오후	대전 세계교회(김영준 목사)	☎042641-0675
5(월) 오후	인양 갈매신학교(김영준 목사)	☎032652-7770
5(월)-7(수)	인천 사림교회(김영준 목사)	☎032652-7770
8(목) 오전	국가조찬기도회, 장소: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	
8(목)-10(토)	대전 살림교회(김영준 목사)	☎042636-6611
12(월)-15(목)	서울 강남성수기도원(원영준 목사)	☎022683-4202

18(주)일 오후	부산 행복교회(이항원 목사)	☎032344-3313
18(주)-21(수)	부산천안교회(김영준 목사)	☎032346-3669
19(월) 오전	세계복음화협의회(대표회장 김성길 목사) 정기총회	
22(목) 오후	장소: 서울 별빛교회(박태남 목사)	☎02923-6481
22(목) 오후	미국(U.S.A) 아칸소주(대표회장 김성길 목사) 주최 정기대회	
22(목) 저녁	장소: 국회의원과 대의의실 1층	☎02749-9793
23(금) 오후	화성 성심교회(김영준 목사)	☎031227-5244
23(금) 오후	한양신학대학교(김영준 목사) 실천목회연구원	☎022067-4511
25(주)일 오후	서울 예전교회(김영준 목사)	☎02435-0541
25(주)일 오전	서울 천안교회(김영준 목사)	☎02848-4445
26(월) 오후	오산리화자살기념식기도원행장 김성길 목사	☎031947-0091
28(월)-29(목)	부산 강남성수기도원(원영준 목사)	☎055375-0831
30(금)-4(1)수	미국(U.S.A) LA 엠마오성령교회(김성길 목사)	☎909698-2990

4월

1(주)-4(수)	미국(U.S.A) LA 한인성교회(이항원 목사)	☎310715-9902
5(목)-8(주)	미국(U.S.A) LA 별빛교회(김영준 목사)	☎323937-1733
10(월)-12(수)	청주 성서교회(김영준 목사)	☎043269-5211
14(토) 오전	세종 평화의동산교회(이종진 목사) 열림동 입당예배	☎041852-2211
15(주)-18(수)	전주 진부교회(김영준 목사)	☎063244-0440
16(월) 오전	세종 평화의동산교회(이종진 목사) 아라리온교회(김영준 목사) MT 예술회	☎041852-2211
19(목) 오후	오산리화자살기념식기도원행장 김성길 목사	☎031947-0091
19(목)-21(토)	인천 송도성령교회(조강원 목사)	☎032634-8291
21(토) 오전	인천 갈매신교회(김영준 목사)	☎011-204-4694
21(토) 오후	인천 행복교회(이항원 목사)	☎010-9204-7706
22(주)일 오후	광주 정공교회(김영준 목사)	☎010-5397-3478
23(월) 오후	창원 은혜교회(이항원 목사)	☎010-8540-8642
23(월)-24(화)	부산 결실교회(김영준 목사)	☎011-9066-7350
24(화) 오후	오산리화자살기념식기도원행장 김성길 목사	☎031947-0091
24(화) 오후	21C(홍성교회)복음화복합구 목사, 대표회장 유근민 목사	☎023463-6925
25(수) 오전	나리와 민족을 위한 전국교회(대표회장 김두봉 장로)	
25(수) 오후	대전 예수성령교회(김영준 목사) 전국남동교회연합회	☎043420-8312
25(수) 저녁	광명 일직교회(김영준 목사)	☎02897-1182
26(목)-28(토)	일본(Japan) 동경 갈매신학교(김영준 목사) 김태원 목사	☎070-8625-9118
30(월) 오후	필리핀(Philippines) 마닐라선교교회, 장소: 마닐라체류관	
	주최: 글로벌세계선교교회(대표회장 남은이 목사)	☎010-7705-8422

5월

1(화)-3(목)	필리핀(Philippines) 마닐라선교교회, 장소: 마닐라체류관	
	주최: 글로벌세계선교교회(대표회장 남은이 목사)	☎010-7705-8422
4(금)-5(토)	김포 갈매신교회(김영준 목사)	☎010-7296-0891
6(주)-9(수)	광명성서교회(김영준 목사)	☎022060-4591
6(주)일 저녁	서울 지주교회(김영준 목사)	☎010-3443-1541
7(월) 오후	주최: 연세대학교 총동문회(복음화협의회총재 김영준 목사)	
	교회장님,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주최: 연세대학교 총동문회(복음화협의회총재 김영준 목사)	
9(수) 오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1C(홍성교회)복합구 김성길 목사	☎010-9185-8686
10(목)-12(토)	서울 개포성령교회(김영준 목사)	☎02573-7797
13(주)일 오후	서울 반석교회(김영준 목사)	☎022246-8604
14(월)-15(화)	서울 천안교회(김영준 목사)	☎010-7532-7731
15(화) 오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김영준 목사) 피종진 목사, 회장 조영식 목사	☎010-9916-5477
18(주)-18(수)	영주 풍기교회(김영준 목사)	☎054636-6229
20(주)일 오후	서울 세실교회(김영준 목사)	☎010-3224-2345
20(주)일 오후	인천 송도성령교회(조강원 목사)	☎032834-8291
21(월) 오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김영준 목사) 이사장 박영순 목사	☎032668-3191
21(월)-24(목)	서울 강남성수기도원(원영준 목사)	☎022683-4202
24(목)-26(토)	부산 은혜성교회(김영준 목사)	☎010-9078-6737
25(금) 오전	서울 성서교회(김영준 목사) 담임 지형은 목사	☎02467-8105
25(금) 오후	인양 갈매신학교(김영준 목사) 이사장 박영순 목사	☎031472-7213
27(주)-28(월)	세종 평화의동산교회(이종진 목사) 남서울중앙교회(이종진 목사)	☎041852-2211
28(월)-30(수)	대전 세계교회(김영준 목사)	☎043644-4222

6월

1(금) 오전	서울 한우교회(김영준 목사) 비전센터, 발사성교회(대표회장 전대박 전도사)	
3(주)일 오후	대전 주안교회(김영준 목사)	☎042631-7216
4(월) 오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김영준 목사) 실천목회연구원	
4(월) 오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주최: 크리스찬연합신학교(김영준 목사) 피종진 목사, 발행인 지미숙 목사	
4(월)-6(수)	광주 살림교회(김영준 목사)	☎06242-6392
6(수) 저녁	전주 기림교회(김영준 목사)	☎010-3672-5402

10(주)일 오후	구이 선신성교회(이성순 목사)	☎054465-2110
10(주)-13(수)	울산 병영교회(유석근 목사)	☎010-3844-6189
11(월) 오후	고양 백제교회(이항원 목사)	☎010-3004-0675
15(금) 오후	한양신학대학교(김영준 목사) 실천목회연구원	☎022067-4511
16(토) 오후	송도성령교회(김영준 목사) 조강원 목사	☎010-5699-3166
17(주)일 오후	화성 별빛교회(김영준 목사)	☎031227-0241
18(월)-20(수)	광명 일직교회(김영준 목사)	☎010-229-0381
19(화) 오후	서울 사생영교회(김영준 목사)	☎02412-5336
	주최: 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이종진 목사)	
22(금) 오전	한양신학대학교(김영준 목사) 실천목회연구원	☎022067-4511
23(토) 오전	서울 성서교회(김영준 목사) 담임 지형은 목사	☎02467-8105
25(월)-27(수)	거제 양곡교회(김영준 목사) 이종진 목사	☎065688-4215
29(금)-7(1)수	미국(U.S.A) 콜라비스타 한인성교회(김영준 목사)	☎619730-8313

7월

2(월)-5(목)	미국(U.S.A) Nysic Movement 2012총회(김영준 목사,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 HQ 뉴욕)	
	장소: 미국 Indianapolis Butler University	
5(목)-8(주)	미국(U.S.A) 보스턴 총동문교회(김영준 목사)	☎978930-6613
6(금)-7(토)	미국(U.S.A) 보스턴 합동총신교회(김영준 목사)	☎617333-3736
16(월) 오후	총회복음화운동본부(김영준 목사) 총회장 조강원 목사	☎031964-2782
16(월)-18(수)	서울 임마누엘교회(김영준 목사)	☎02436-1777
19(목)-20(금)	인천 영랑교회(김영준 목사)	☎032675-1654
23(월) 오전	오산리화자살기념식기도원행장 김성길 목사	☎031947-0091
	주최: 21C(홍성교회)복합구(김영준 목사) 성경모 목사	
23(월)-25(수)	충주 성서교회(김영준 목사)	☎043653-3990
27(금) 월야	부산 포도교회(김영준 목사)	☎061333-3736
29(주)일 오후	인천 개성교회(김영준 목사)	☎032641-8861
	주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국남동교회연합회(김영준 목사) 김두봉 장로	
30(월)-8(2)목	서울 강남성수기도원(원영준 목사)	☎022683-4202
31(화) 오전	양평성서교회(김영준 목사)	☎031772-9113
	주최: 첫사랑복음운동본부(대표회장 김태원 목사)	

8월

2(목)-4(토)	구이 선신성교회(이성순 목사)	☎054481-1941
6(월) 오후	전주 목회자(김영준 목사), 주최: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김영준 목사), 대표회장 김성길 목사, 장소: 서울 예전교회(김영준 목사)	☎02436-1777
6(월)-9(목)	여수 사생영교회(김영준 목사)	☎010-7269-0191
9(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교회(이종진 목사)	☎041852-2211
10(금) 오후	서울 개포성령교회(김영준 목사)	☎02673-7797
13(월)-15(수)	군산 갈매신교회(김영준 목사) 조봉순 목사	☎061741-8091
15(수) 오후	한인총동맹 국가(대표회장 김태원 목사) 대표회장 김태원 목사	☎010-3927-0691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17(금) 오후	서울 한성교회(김영준 목사)	☎011-347-3390
17(금)-18(토)	안양 갈매신학교(김영준 목사) 조봉순 목사	☎031472-7213
19(주) 저녁	인천 임마누엘교회(김영준 목사)	☎031494-7750
20(월)-22(수)	일본(Japan) 동경 노숙자 선교사(김영준 목사) 일본 노숙자선교회	☎070-8625-9118
23(목)-25(토)	일본(Japan) 나리다 갈매신학교(김영준 목사) 김태원 목사	☎031947-0091
25(토) 저녁	오산리화자살기념식기도원행장 김성길 목사	☎031947-0091
	주최: 한국기독교총동문회(복음화협의회총재 김영준 목사), 대표회장 장필수 목사	
27(월)-31(금)	필리핀(Philippines) 보라카이 선교대회 및 세미나	
	주최: 연세대학교 총동문회(복음화협의회총재 김영준 목사)	

9월

3(월)-4(화)	대만(Taiwan) 동경지역연합교회(대표회장 류계란 목사)	☎886-0930-654-552
5(수)-6(목)	대만(Taiwan) 해남지역연합교회(대표회장 류계란 목사)	☎886-0930-654-552
7(금) 오후	한양신학대학교(김영준 목사) 실천목회연구원	☎022067-4511
10(월)-12(수)	대구 별빛성령교회(김영준 목사) 유은숙 목사	☎010-3131-5364
13(목) 오전	오산리화자살기념식기도원행장 김성길 목사	☎031947-0091
	주최: 연세대학교 총동문회(복음화협의회총재 김영준 목사)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13(목)-17(월)	말레이시아(Malaysia) 플라타너스교회(김영준 목사)	☎0708637-1140
21(금) 오전	한국기독교총동맹(대표회장 박태남 목사)	☎023452-2500
	장소: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21(금) 오후	국제총신교회(김영준 목사) 피종진 목사, 이사장 박영순 목사	☎031968-9191
21(금) 저녁	인천 세이빙교회(김영준 목사)	☎032682-0191
23(주)-26(수)	서울성서교회(김영준 목사)	☎02481-1636
23(주)일 저녁	울산 대서교회(김영준 목사)	☎043881-6440
25(화) 오전	한양신학대학교(김영준 목사) 실천목회연구원	☎022067-4511
26(수) 오전	일산선복음성교회(김영준 목사)	☎031901-0191
27(목)-29(토)	대전 세시교회(김영준 목사)	☎031233-3132
30(주)일 오후	서울 빛과성교회(김영준 목사)	☎02835-0179

10월

1(월)-4(목)	부산 강남성수기도원(원영준 목사)	☎055375-0831
-----------	--------------------	--------------

8(월) 오전	기독교연합회,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흥사모원	
8(월)-10(수)	부산 남도교회(김영준 목사)	☎051897-0151
11(목) 오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목사안수식	
11(목)-12(금)	서울 개포성령교회(김영준 목사)	☎02673-7797
15(월)-16(화)	서울 글로벌선교사모원, 서울제단원장 김은숙 목사	☎010-6358-8999
17(수) 저녁	인천 사생영교회(김영준 목사)	☎032652-7770
19(금) 오후	총동문회(복음화협의회) 피종진 목사, 학장 박종우 목사	☎023666-1177
20(토) 오후	M.T. 문화행사	
22(월)-23(화)	전국목회자(사모) 세미나, 주최: (사)세계복음화협의회(이종진 목사)	
	장소: 세종 평화의동산교회(이종진 목사)	☎041852-2211
22(월)-24(수)	군산 갈매신교회(김영준 목사)	☎070-4235-3528
24(수)-26(금)	서울 연세대학교(김영준 목사)	☎02434-4715
28(주)일 오후	양평성서교회(김영준 목사)	☎031281-9192
29(월) 오후	양평성서교회(김영준 목사)	☎031772-9113
29(월)-31(수)	필리핀(Philippines) 데이오(Daewo) 선교사모원, 필리핀연합교회	☎070-8200-0042

11월

1(목)-3(토)	필리핀(Philippines) 데이오(Daewo) 선교사모원, 필리핀연합교회	☎070-8200-0042
5(월) 저녁	일산 선신성교회(이성순 목사)	☎031977-6383
	주최: 연세대학교 총동문회(복음화협의회총재 김영준 목사)	
6(화) 저녁	인천 송도성령교회(조강원 목사)	☎032834-8291
7(수) 저녁	인천 영랑교회(김영준 목사)	☎032675-1654
12(월)-15(목)	서울 강남성수기도원(원영준 목사)	☎016-2663-4202
16(금) 오전	서울 성서성령교회(김영준 목사)	☎02467-8105
	주최: 한국기독교총동문회(복음화협의회총재 김영준 목사)	
16(금) 오후	한양신학대학교(김영준 목사) 실천목회연구원	☎022067-4511
16(금)-17(토)	부산 JS TV 위성방송센터(이사장) 피종진 목사, 사장 이종진 목사	☎016-9315-7354
19(주)일 오후	일산 예수성령교회(김영준 목사)	☎016-9315-7354
19(주)일 오후	충주 성서교회(김영준 목사)	☎043269-5211
	장소: 필리핀 구구루	
21(수) 오후	인도(India) 선교사모원, 한인목회자(사모) 세미나, 필리핀, 방글라데시 Nysic World Mission 컨퍼런스(김영준 목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 서울(사)복음화운동본부(김영준 목사) 피종진 목사	☎070-8628-7411
22(목)-23(금)	인도(India) 사모원(사)인양연합교회(김영준 목사) 피종진 목사	☎070-8628-7411
	장소: 뉴질랜드 구구루	
25(주)-27(목)	군산 별빛성령교회(김영준 목사)	☎010-6358-3757
28(수) 오전	오산리화자살기념식기도원행장 김성길 목사	☎031947-0091
	주	